

한글

한 권으로 끝내기

국어 영역 문학편

정답과 해설



현대 시

기출로 3년 익히기 1

본문 012~013쪽

01 ④ 02 ③

가 [병원 _ 윤동주]

해제 이 시는 병원에서 외로운 처지에 있는 여자를 연민하고 공감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상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화자는 아픔을 오래 참다 병원에 찾아갔지만 늙은 의사는 자신의 병을 모른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여자와 자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이 시는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지식인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절망적 상황에 대한 연민과 상황 극복에 대한 소망

특징 •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임
• 시상 전개 대상이 젊은 여자에서 화자로 이동됨

구성 1연 :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함
2연 : 아픔을 참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병을 모른다고 함
3연 : 젊은 여자와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람

작가 알기

윤동주(1917~1945) : 일제 강점기 현실과 그 속에서 느낀 고뇌를 주로 시로 형상화하였다.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찰을 담은 시를 주로 창작하였다. 부끄러움은 일제 강점하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시인 자신의 죄책감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교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십자가」, 「쉽게 씌어진 시」 등이 있다.

나 [나무 _ 박목월]

해제 이 시는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중에 화자가 본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여행 중에 본 나무에게서 수도승의 묵중함, 객의 침울함, 파수병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나무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자신의 내면에서 비로소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부로 전환함으로써 화자는 인간 삶의 근원적 고독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면서 나무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한 내면의 성찰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다양한 인상을 표현함
• 통사 구조의 반복과 병렬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줌

구성 1~2행 : 나무에게서 수도승의 묵중함을 느낌
3~5행 : 나무에게서 객의 침울함을 느낌
6~7행 : 나무에게서 파수병의 외로움을 느낌
8~10행 : 자신의 내면에 나무가 자리함을 깨달음

작가 알기

박목월(1916~1978) :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초기에는 민요적 울조로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서정시를 주로 썼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생활 주변이나 가족을 소재로 하여 일상의 삶을 담은 시를 주로 썼다. 대표 작품으로는 「나그네」, 「산이 날 에워싸고」, 「가정」, 「만술 아버의 축문」 등이 있다.

01 감상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나)에서는 ‘-르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도승일까’, ‘어설픈 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로 변주하여, 나무가 연상시키는 의미를 묵중함, 침울함, 고독함으로 심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흰옷’, ‘하얀 다리’와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일상의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 전망보다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과거형 시제를 활용하여 나무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02 화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가)의 화자는 ‘늙은 의사’가 ‘젊은이의 병’을 모르고 있지만 성내는 안 된다고 하며 분노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를 여자와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가 병원 뒤뜰에 누워 일광욕을 하는 ‘여자’를 관찰하는 것에서 (가)의 화자가 ‘여자’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에서 (나)의 화자가 ‘나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외롭고 쓸쓸한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나무’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가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가)의 화자가 ‘여자’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어느 산마루에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외로워 보였다’고 하는 것에서 (나)의 화자가 나무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화자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는 것을 통해 (가)의 화자가 여자에게 동질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가 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난 후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나)의 화자가 나무에 동질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① 02 ④ 03 ③

가 [플라타너스 - 김현승]

해제 이 시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플라타너스'를 꿈과 덕성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고,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꿈과 덕성한 사랑을 가진 존재이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싶지만 인간이라는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특징 •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냄
• '플라타너스'를 매 연마다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구성 1연: 꿈을 가진 플라타너스
2연: 헌신을 베푸는 플라타너스
3연: '나'의 외로움을 달래 준 플라타너스
4연: 플라타너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5연: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

작가 알기

김현승(1913~1975): 1934년 스승인 양주동의 천거로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이 『동아일보』에 발표되면서 등단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고독이나 허무와 같은 내면 세계를 주로 노래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눈물」, 「가을」, 「가을의 기도」, 「견고한 고독」, 「파도」 등이 있다.

나 [달 - 정지용]

해제 이 시는 달밤의 고즈넉한 운치와 이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영창으로 밀려오는 달빛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온 화자는 달밤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취해 이에 대한 감흥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달빛에 비친 마당에서 보이는 대상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인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주제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특징 •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
•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구성 1연: 영창으로 밀려오는 달
2연: 달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가는 화자
3연: 조화롭고 아름다운 마당의 정경
4연: 흰 돌의 고운 모습
5연: 녹음에서 들리는 숨소리
6연: 비둘기 울음소리와 오동나무 꽃향기에서 느끼는 감흥

작가 알기

정지용(1902~1950): 섬세한 이미지와 세련된 시어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초기에는 가톨릭 신앙을 근거한 종교시와 이미지즘 계열의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으나, 후기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주로 형상화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향수」, 「유리창」, 「인동차」, 「발열」 등이 있다.

01 표현 표현상의 특징

(가)의 화자는 매 연마다 '플라타너스'를 호명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중심 대상인 '플라타너스'로 초점을 모아 이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플라타너스'는 화자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③ (가)의 1연에서 '파아란 하늘'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5연에서도 '검은 흙'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④ (가)에서는 '젖어 있다', '늘인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플라타너스'가 지닌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⑤ (가)의 '파아란 하늘', '아름다운 별' 등을 상성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①은 (가)의 화자가 멀고 험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고독감을 느낄 때를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은 (나)의 화자가 홀로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한밤의 정경을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①은 (가)의 화자가 자신의 고독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가)의 화자는 대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②은 (나)의 화자가 자연을 홀로 감상하는 것이므로 반성적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② ②은 (가)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②은 (나)의 화자가 현재 보는 것으로,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③ ③의 상황에서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걸었으므로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④의 상황에서 (나)의 화자는 감흥을 즐기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⑤ ⑤으로 (가)의 화자가 고독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부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⑥으로 (나)의 화자는 현재의 감흥을 느끼고 있을 뿐, 이것이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고는 볼 수 없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의 '창'은 (가)의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로,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영창'을 통해 달빛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따라서 '영창'은 방 안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것이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가 같이 걷는 모습을 통해 화자와 사물과의 교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흰 돌'의 고운 모습을 알아보고 감탄하는 것에서 화자와 사물과의 교감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어느 날'은 삶이 다하는 날이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으로 인해 마당으로 나가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보게 되므로 (나)의 화자는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동그아니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달빛이 가득한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수고로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하며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이아 못 건디게 향그럽다.'라고 하며 달밤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기출로 3년 익히기 3

본문 017~019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④

가 [문학적 시간]

해제 이 글은 문학적 시간의 개념과 표현, 서정시의 시간의 모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문학적 시간의 표현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서정시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주제 문학적 시간의 표현과 시간의 모호성

나 [고풍 의상 - 조지훈]

해제 이 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봄밤, 전통 가옥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전적 우아미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특징 •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함
•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냄

구성 1~3행: 지붕의 곡선미와 봄밤의 정취
4~6행: 저고리의 색채미
7~8행: 치마의 곡선미
9~12행: 춤사위의 은은한 아름다움
13~14행: 화자와 고전미의 일체감

작가 알기

조지훈(1920~1968): 청록파의 한 사람으로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전통에 대한 향수와 민족의 한(恨)을 섬세하게 노래한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봉황수」, 「승무」, 「낙화」, 「완화삼」 등이 있다.

다 [결빙의 아버지 - 이수익]

해제 이 시는 어머니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를 회상하며 지금은 돌아가셔서 옆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교를 지나면서 어린 물살이 무사히 흘러 가도록 혹은 막아주는 얼음을 보면서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감각적 이미지를 일반적 속성과 달리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강조함

구성 1연: 유년 시절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를 회상함
2연: 자식을 돌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함
3연: 한강교의 얼음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림

작가 알기

이수익(1942~): 방송곡에서 근무하면서 시를 창작한 시인으로 젊은 날에 대한 추억과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담은 시를 주로 창작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장작패기」, 「우울한 상충」, 「단오」 등이 있다.

01 시어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①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애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봄밤'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①은 자연적 시간을 작가의 의식에 따라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은 화자의 정서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거나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작품의 내적 상황에 따라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④은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는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⑤은 '이 밤'에 느끼는 '옛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⑤ ⑥은 '흔들어지이다'에서 알 수 있듯 현재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02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과거에 화자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공간으로, 이곳이 화자의 현재 위치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는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은 현재의 화자가 잠든 아이들의 이불깃을 덮어 주다가 아버지와의 과거 추억을 회상한 것이므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현재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본 얼음을 통해 과거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에 외풍을 막아 주었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과거에 돌아가신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에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03 표현 표현상의 특징

(나)의 '아미(蛾眉)를 숙이고……'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이 호접인 양 춤을 추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표현한 것으로,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날'은 '날을'로, '늘인'은 '늘이운'으로, '고와라'는 '곰아라'로, '파란'은 '파르란'으로, 시어를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부연', '풍경', '처마', '주렴',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고전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우아한 춤사위를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알아두기 화자의 시선 이동

「고풍 의상」에서 화자는 춤을 추고 있는 배경에 주목한 후, 여인의 우아한 춤사위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춤사위를 묘사할 때에는 '호장저고리 → 처마 → 운혜, 당혜' 순으로 시선을 수직적 이동(상 → 하)하여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와 춤사위를 나타내고 있다.

04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도 '부드럽고 여린 물살(자식)'이 무사히 흘러 가라고 호환을 막으며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헌신과 사랑이라는 내면의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아버지가 된 (다)의 화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유년 시절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호응한다.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화자의 아버지부터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 ②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의 화자가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의 화자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현재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것은 과거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었던 기억과 연결된 정서로, 여기에는 아버지(다)의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실전 완성하기 1

본문 020~021쪽

01 ⑤ 02 ③ 03 ④

[북어 _ 최승호]

해제 이 시는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를 보면서 현대인의 획일화된 모습과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의 '북어'는 시적 대상을 넘어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상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은 북어의 외침을 통해 시적 화자를 향하게 되는데, 이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이자 반성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비판 및 반성

특징

-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전도시켜 주제를 부각함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인 북어를 구체적으로 묘사함

구성

- 1~8행 :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
- 9~19행 :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과 연민
- 20~23행 :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 및 반성

작품 한눈에 보기

북어	현대인
밤의 식료품 가게에 있음 자갈처럼 딱딱한 혀와 말라붙고 찌푸라진 눈, 뻣뻣한 지느러미	= 동일시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있음 진실을 말하지 못하며, 생명력을 잃고 획일화된 수동적인 모습
↓ '너도 북어지'라는 북어의 외침 :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	

작가 알기

최승호(1954~)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고발이나 환경 문제를 다룬 시들을 주로 썼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대설주의보」, 「세속 도시의 즐거움」, 「아마존 수족관」 등이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공간의 이동 없이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 말한 셈이다'를 반복하여 북어를 통해 비판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너도 북어지'를 반복하여 획일화된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화자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무생물인 '북어'가 화자를 향해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라고 외치며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북어를 의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기력한 삶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식료품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어라는 평범한 소재를 통해 무기력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인 북어를 시각적 이미지로 생성해 묘사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변비증'은 '대변이 대장 속에 오래 맺혀 있고, 잘 누어지지 아니하는 병'으로,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이란 부정적인 현실에 침

묵하며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대인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밤'은 어두운 시대상과 암담한 현실을, '식료품 가게'는 음식 재료를 진열하여 파는 곳으로 물질적이고 문명화된 현대 사회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꼬챙이'는 사물을 일렬로 꿰뚫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챙이에 꿰어진 북어들은 획일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꼬챙이에 꿰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북어는 무생명의 상태이므로 생명력을 상실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막대기'는 딱딱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란 생명력을 잃고 획일화되어 무기력한 삶을 사는 현대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헤엄쳐 갈 데'는 꿈과 이상, 즉 삶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현대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북어」의 시대적 배경

최승호 시인은 1980년 사북 지역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 항쟁인 사북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북어」를 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어」가 창작된 1980년대는 무력으로 집권한 신군부가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던 시기였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시의 화자는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를 보며 현대인의 획일화되고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비판하다가 '느닷없이'라는 시행의 이후부터는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느닷없이' 이후 비판의 대상이던 북어와 이를 바라보던 화자의 관계가 바뀌어,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북어는 화자를 비판하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화자와 북어의 관계를 전도시켜 화자 또한 다른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북어의 비판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의 소리에 해당한다.

② 이 시의 전반부에서 북어는 획일화되고 무기력한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각성과 반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친숙한 사물인 북어에, 암울한 현실에 침묵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표현의 참신함을 높이고 있다.

③ 20~23행에서 화자는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들이 살아나 자신을 향해 '너도 북어지'라고 외치는 낯선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물을 낯설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이 시는 식료품 가게라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상이 시작되지만, 20행의 '느닷없이'라는 시행을 기점으로 비일상적인 상황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알아두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대상을 뒤집어 보거나 새롭고 낯선 것으로 보게 하는 방식이다. 일상 언어를 낯설게 하여 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거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정형을 거부하고 문학적 관습을 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이상의 「오감도」를 들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2

본문 022~023쪽

01 ④ 02 ③ 03 ③

가 [낙타 _ 신경림]

해제 이 시는 아무런 욕심 없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낙타처럼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현재 슬픔과 아픔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자연의 순리대로 무욕의 삶을 사는 낙타를 보며 자신도 낙타와 같이 세상사를 초월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초월과 달관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

특징 •반어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구성 1~6행 : 저승길의 동반자로서의 낙타

7~15행 : 이상적 존재로서의 낙타

작품 한눈에 보기

동경, 동일시	낙타
화자	•세상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초월적 존재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가엾다고 여기나, 화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작가 알기

신경림(1936~) : 1955년 「문예예술」에 「갈대」, 「묘비」 등이 추천되어 등단하였으나 작품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65년에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73년 첫 시집 『농무』를 간행하였다. 주로 농민의 고달픈 현실을 따뜻한 시선에서 그린 서정시를 썼다. 대표 작품으로 「농무」, 「가난한 사랑 노래」, 「갈대」, 「목계장터」 등이 있다.

나 [흙을 만지며 _ 조지훈]

해제 이 시는 이해관계에 얽힌 현실의 경쟁과 갈등의 삶을 벗어나 전원 속에서 안분지족의 삶의 여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현실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지만 갈등과 경쟁, 다툼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곳이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신적 풍요가 있는, 흙냄새 나는 전원에서 초가삼간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주제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소망과 의지

특징 •대조적인 시어와 시구를 사용한

•자신에게 청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망을 강조함

구성 1연 :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

2연 : 세속적인 삶의 외로움

3연 : 세속적인 가치의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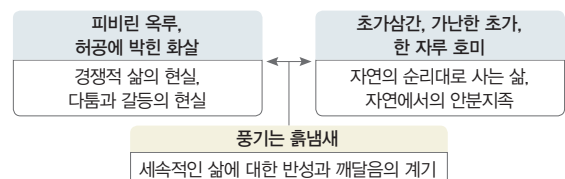
4연 : 자연에서 깨달은 삶의 원리

5연 :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순응

6연 :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삶

7연 : 전원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여유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조지훈(1920~1968) :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초기에는 주로 한국의 고전적인 미 세계를 다룬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며 현실에 대응하는 시들을 썼다. 대표 작품으로 「승무」, 「봉황수」, 「고사」, 「역사 앞에서」, 「다부원에서」 등이 있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낙타'라는 구체적인 동물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초가삼간', '호미', '가난한 초가'와 같이 소박한 전원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어리석은 사람', '가장 가없는 사람'은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존재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나)에서는 '초가삼간을 나는 짐짓', '한 자루 호미를 버루어 보자',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 등에서 문법적으로 '나'에는 쓸 수 없는 청유형을 사용하여 전원에서 살아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가)에는 청유형 어미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가)는 첫 행 등 시 전체에 도치가 나타나고, (나) 역시 1연과 6연에 도치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 ⑤ (가)에서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대조적인 세계가 나타나지만 이를 유사한 시구의 변용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나)에서 2연과 7연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변용하여 속세와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0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낙타'가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사의 고뇌를 초월하였기 때문이므로, 다른 사람의 고뇌를 대신 해결해 주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② 낙타는 세상사의 고뇌를 잊고 자연 속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화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낙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세상 사람들은 자연만 바라보며 살고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여 재미없는 삶을 사는 낙타를 가장 어리석고 가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허공에 박힌 화살'은 '한 자루 호미'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구로, 세속적 현실 세계의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삶인 전원 속에서의 삶과는 대조된다.

- 오답 풀이** ① '피비린 옥루(玉樓)'는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세속적 욕망의 산물이다.
- ②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은 물질적 풍요를 지닌 세속적 삶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외로움을 안겨 주는 공간이다.
- ④ '풍기는 흙냄새'는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 즉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속세에서 세속적 욕망에 젖어 살아온 화자에게 뇌우침과 반성을 이끌어내어, 화자가 전원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가난한 초가'는 화자가 원하는 삶으로,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여 여유롭게 사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실전 완성하기 3

본문 024~025쪽

01 ② 02 ④ 03 ⑤

가 [상하 - 박목월]

해제 위층 다락방은 화자가 시를 쓰는 공간이고, 아래층은 아내가 아낙네들과 모여 계를 하는 현실적 공간이다. 화자는 시를 쓰는 공간인 위층에 있으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이처럼 이시는 창작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오가며 느끼는 시인의 현실적인 고뇌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주제 시인으로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달픈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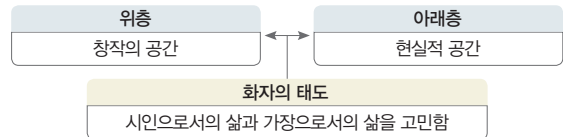
특징 공간의 이동(위층 → 아래층, 아래층 → 위층)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구성 1연 : 계 모임이 있는 아래층

2연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인으로서의 삶

3연 : 시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압박감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박목월(1916~1978) :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초기에는 민요적 울조로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서정시를 주로 썼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생활 주변이나 가족을 소재로 하여 일상의 삶을 담은 시를 주로 썼다. 대표 작품으로 「나그네」, 「산이 날 에워싸고」, 「가정」, 「만술 아버의 축문」 등이 있다.

나 [노신 - 김광균]

해제 이 시의 화자는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가난한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문학 세계를 완성한 중국의 작가 '노신'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인으로서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 의지

특징 외적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삶을 성찰함

구성 1~5행 : 시를 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

6~13행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14~21행 : 노신을 생각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김광균(1914~1993) :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 참신한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적 감수성과 문명 비판적인 지성을 노래한 시를 썼다. 대표 작품으로 「와사동」, 「외인촌」, 「설야」, 「추일서정」 등이 있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와 (나)는 모두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화자가 가족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고뇌하며 자신의 삶을 서글프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화자는 현실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실의 삶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 내고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순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안주할 곳은 가정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화자가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와 태도를 통해 삶의 힘겨움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사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아래층에 내려왔던 (가)의 화자는 다시 시를 쓰는 공간인 위층으로 오르면서 공기의 희박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창작의 공간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위층이 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해 준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아래층은 아내가 주변의 아낙네들과 함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공간으로, 현실의 삶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아래층과 달리, 시를 쓰는 공간인 위층은 정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한다.

③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릴 때 뛰는 '백열등주'는 고통스러운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는 화자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⑤ 층층대가 열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의 삶과 관련지어 불안정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03 시상 전개 방식

㉔은 (나)의 화자가 중국의 작가 노신을 생각하며 자신도 노신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㉑과 ㉔에서는 시인이라는 직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제시되어 있고, ㉔에서는 중국의 작가 노신을 생각하며 앞서 고뇌했던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 내겠다는 다짐을 제시하고 있다.

② ㉑에서 화자는 '아내와 어린것'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㉔에서 화자는 고달픈 삶으로 인해 등불을 켜고 일어나 담배를 피워 무는 행동을 하게 된다.

④ ㉔에서 화자는 노신을 생각하며 노신처럼 굳세게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가 자신과 노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루쉰(魯迅, 노신)

마오쩌둥이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요, 중국 문학의 아버지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다. 치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모든 관념 타파를 기조로 삼았다. 문학과 사상을 통해 봉건적 사회 속에서 개인을 잃고 살아가던 중국 민족에서 인간성과 개인성을 자각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문예를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을 폭로한 「광인일기」와 「아Q정전」 등을 창작하였다.

실전 완성하기 4

본문 026~027쪽

01 ④ 02 ③ 03 ③

가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_ 서정주]

해제 이 시는 눈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눈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눈발이 포용하는 대상은 '까투리 메추래기 새끼'부터 '낮이 붉은 처녀 아이들', '상처받은 운명들', '크고 작은 슬픔과 기쁨', '대자연'까지 점층적으로 확대되며, 작가는 이러한 눈발의 포용력을 모성애와 연결 지어 이해하고 있다.

주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는 눈발의 긍정과 포용

특징 • 시적 허용이 빈번하게 드러남
• 시어의 반복, 행 구성, 말줄임표로 눈이 내리는 모습과 쌓인 모습을 형상화함

구성 1연 : 작은 생명들을 감싸는 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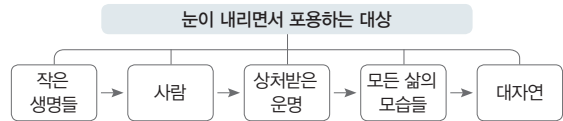
2연 : 사람을 포근히 감싸는 눈발

3연 : 상처받은 운명을 포용하는 눈발

4연 : 삶의 슬픔과 기쁨을 포용하는 눈발

5연 : 대자연을 포용하는 눈발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서정주(1915~2000) : 다양한 시적 경향을 보여 주며, 우리말을 아름다운 시어로 구사하는 천부적인 역량을 보이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동양적 사상에 관심을 두어 재생과 자기 성찰, 민족적 정조를 노래하였다. 「화사」, 「자화상」, 「귀족도」 등의 작품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나 [소금 바다로 가다 _ 김명인]

해제 이 시의 화자는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여겼던 '소금 굽는 사람'의 행동이 사실상 '소금'이라는 고귀한 결정체를 얻어 내는 가치 있는 행동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제 고된 일상 속에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

특징 시상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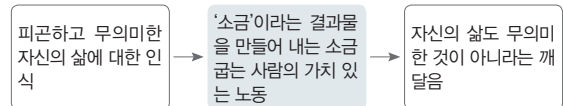
구성 1연 :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2연 : 자신에 대한 허망함과 자괴감

3연 : 소금 굽는 사람을 통해 찾아낸 삶의 의미

4연 : 삶에 대한 긍정과 삶의 의지 회복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김명인(1946~) : 6·25 전쟁과 관련된 기억,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새겨진 정신적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 태도를 보이는 시를 주로 썼다. 「달의 뒤쪽」, 「문장들」, 「그 나무」 등의 작품이 있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덮는 '눈'을 포용과 긍정이라는 이미지로 바라보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며, (나)는 부패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소금의 속성을 통해 모든 존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노동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으나, (나)는 특별한 계절적 배경을 찾아볼 수 없다.

②, ③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면의 변화나 모순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청자 없이 독백 조로 전개되고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가)의 3~4연에서는 운명, 삶의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포근하게 포용하는 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는 눈이 내리는 모습이나 눈이 내리는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역동적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눈의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더 강조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는 '괜, 찬, 타...'가 1행부터 4행까지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눈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2연에서는 '괜, 찬, 타...'가 한 행에 수평적으로 제시되어 눈이 쌓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수부룩이'나 '꼭은하'는 시적 허용으로, 눈이 수북하게 내리는 느낌과 눈의 포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1연부터 5연까지 사상이 전개되면서 처음에는 작은 생명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산과 같은 대자연이 눈 속에 묻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1연에서 5연까지 매 연마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하면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시적 허용

시는 인간의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는 갈래로,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문법상 어긋난 표현이라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문법 표현으로는 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적 허용을 하는 것이다. 어순을 이탈하여 쓰는 것, 신조어나 고어를 사용하는 것, 단어를 늘이거나 줄여서 쓰는 것 등이 시적 허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를 활용하면 시의 운율을 살릴 수 있고, 특별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화자는 처음에는 등만 보이는 소금 굽는 사람의 노동을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여겼지만, 그 노동의 결과물로 구워진 소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소금 굽는 사람'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막장'이라는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와 '매연'이라는 부정적 느낌의 시어는 화자가 인식하는 세상의 모습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② '썩어서 부식토가 되는 나뭇잎'은 자연을 이롭게 하는데, 화자는 이와 달리 자신은 썩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풍화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④ 보이지 않던 소금이 구워진 소금으로 전환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던 화자는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있다.

⑤ '눈물'을 '소금'으로 뭉치면서 화자는 세상에 나가 맞서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실전 완성하기 5

본문 028~030쪽

01 ⑤ 02 ③ 03 ⑤

가 [파발가에서 _ 김수영]

해제 파가 오래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새롭게 푸른 색이 돌아오면 이내 파발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지난 사랑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붉은 파가 자신의 몸을 잃음으로써 푸른 새색을 만들어 내듯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잃어야 한다는 삶의 진리, 즉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고루한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매 연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의 주제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주제 새로운 사랑을 향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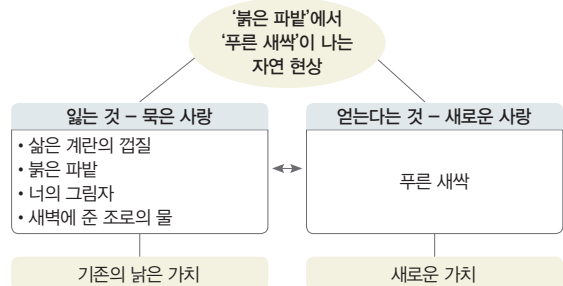
특징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 비유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구성 1연 : 묵은 사랑을 벗겨 내려는 마음

2연 : 묵은 사랑을 떨쳐 내려는 의지

3연 : 묵은 사랑에 대한 뉘우침과 극복 의지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김수영(1921~1968) : 김경린, 박인환과 함께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내면서 모더니즘 시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초기 작품은 현대 문명과 도시의 삶을 비판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주로 썼으나, 후기에는 직설적 시풍에서 벗어나 격변하는 시대 현실로 인한 방향과 번민을 지적 언어를 사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서정의 문을 열었다. 4·19 혁명 이후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지식인의 회의, 방향, 좌절, 고뇌 등이 깊이 새겨진 참여시를 주로 썼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풀」, 「눈」, 「폭포」 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파발가에서」와 같이 시적 대상으로 일상 현실이 자주 등장하는 경향의 시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나의 가족」,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이 있다.

나 [전라도 가시내 _ 이용악]

해제 이 시는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북간도 어느 주막에서 만나 느낀 동질감과 연민의 정을 이야기시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함경도와 전라도로 설정된 두 인물의 고향을 통해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유랑의 아픔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여 북간도 이주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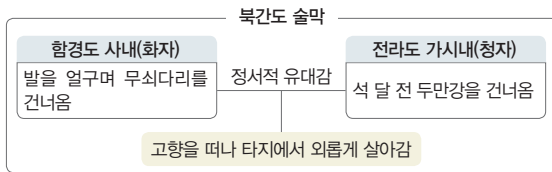
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라도 가시내'의 직접적인 발화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는 자신을 '나', 전라도 가시내를 '너'라고 칭하며 자신과 같이 고달픈 삶의 이력을 가진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에 공감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주제 북간도를 떠도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특징 •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구성 1연: 전라도 가시내와 함경도 사내의 만남
2연: 흥흥한 북간도 술막의 분위기
3연: 전라도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사내
4연: 고향을 떠나온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
5연: 전라도 가시내의 슬픔에 대한 사내의 위로
6연: 새벽길을 떠나야 하는 사내의 운명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이육사(1914~1971):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하고 고학과 노동 등 고달픈 삶을 산 시인의 자전적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혹독한 가난 속에서의 개인적 체험을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참혹한 삶과 공평한 현실로 확대하며 당시의 시대상을 신랄하게 보여 주었다. 대표 작품으로는 「오랑캐꽃」,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집」 등이 있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보아라'와 같은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랑으로 묵은 사랑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잠귀다오', '돌아가거라'와 같은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 유랑을 하고 있는 전라도 가시내를 위로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가시내야 / 나는 발을 얼구며 /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가 설정되어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붉은 파발'과 '푸른 새싹'의 색채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색채 대비가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함경도', '북간도', '전라도'와 같은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가 오래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새롭게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파발은 이내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다. (가)의 화자는 붉은 파발을 묵은 사랑으로, 푸른 새싹을 새로운 사랑으로 비유하여,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담담한 어조란 차분하고 평온한 말투를 말하는데 (가)의 각 연의 앞부분에서는 담담한 어조가 드러나지만 명령형의 말투가 사용된 각 연의 뒷부분은 담담한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가)의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묵은 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이다. 화자는 이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잃어야 하는 것도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가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은 화자 내면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에서 이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은 찾아볼 수 없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는 고향을 떠나 타지를 유랑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다. 둘은 북간도 술막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 연에서 함경도 사내는 홀로 새벽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1연에서 전라도 가시내의 외양을 묘사한 '알록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다',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의 시구는 전라도 가시내가 살았던 고향의 이미지를 끌어다 표현한 것이다. 이 시어들이 갖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라도 가시내의 고향이 전라도에 있는 어느 바닷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의 1연을 통해 함경도 사내가 무쇠다리(두만강 철교)를 건너온 인물임을, 4연을 통해 전라도 가시내가 세 달 전에 두만강을 건너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 북간도로 이주한 처지임을 의미한다.

③ (나)의 화자는 '북간도 술막'에서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덥다고 하며 흥흥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④ (나)의 전라도 가시내는 가슴에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간직한 인물이다. 이는 그녀가 힘겹게 살아왔으며, 이로 인한 가슴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두기 이야기 형식의 시

소설처럼 일정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서술이 아니라 운율을 살린 함축적인 언어로서 제시한 시를 말한다. 이때 연과 행의 구분이 있더라도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가 드러나면서 인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 이어진다면 이야기 형식의 시로 볼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6

본문 031~033쪽

01 ① 02 ④ 03 ③

가 [세한도의 창작 배경]

해제 이 글은 추사 김정희가 그림 「세한도」를 어떻게 창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지조를 잃지 않는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빗대어 「세한도」를 창작하였다.

주제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린 배경

나 [세한도 _ 송수권]

해제 이 시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에 시인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시적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그림의 빈 공간에 '까치 한 쌍'과 '까치집 하나'를 새로 그려 넣고 이승에서, 그리고 저승에서 폭발하는 울음을 여백에 담아내고 있다. 이때 '울음'은 삶과 죽음의 세계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두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삶과 죽음의 세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세한의 극복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통한 세한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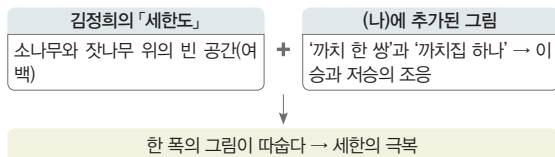
특징 생략과 압축을 통해 시적 여운을 줌

구성 1연 : 생명이 폭발하는 세한도

2연 : 죽음의 세계로 이어진 세한도

3연 : 삶과 죽음이 조응하는 세한의 세계에서 느끼는 파사 로움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송수권(1940~) : 전통 서정시에 역사성과 현장성을 접목시킨 시를 주로 썼다. 그의 시는 판소리의 맺고 풀림과 같이 웅이진 한을 승화시키는 상승의 미학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 작품으로 「여승」, 「산문에 기대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지리산 뺨꼭새」 등이 있다.

다 [세한도 _ 정호승]

해제 이 시는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부재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벽에 걸린 「세한도」의 좁고 쓸쓸한 풍경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헤맨 후 돌아와 아버지의 텅 빈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식의 모습에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무사일로 평생을 보낸 아버지가 이제는 발 붙일 곳 없어진 세상을 보며 화자는 '바람은 차고 달은 춥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추운 세한의 세상에 날아와 앉은 '새 한 마리'는 세한 속에 떠돌고 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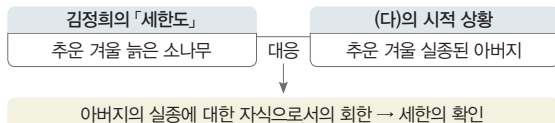
주제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느끼는 세한

특징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함

구성 1~8행 :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한 자식의 회한

9~14행 : 아버지의 부재에서 느끼는 세한의 추위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정호승(1950~) : 일상적이면서도 쉬운 언어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 진실한 사랑과 외로움을 주로 그려 냈다. 대표 작품으로 「봄 길」, 「슬픔이 기쁨에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또 기다리는 편지」 등이 있다.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의 지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송수권의 시 「세한도」는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적 세상과 주제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화자는 방에 걸려 있는 세한도의 소나무를 보고,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슬픔, 후회, 절망감 등의 감정을 환기하고 있다.

③ (나)의 '이 여백에서 폭발하는 울음'에서 보듯 까치 한 쌍을 그려 넣은 후 「세한도」의 여백에서 들리는 듯한 까치의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④ (다)는 그림 속 겨울의 냉혹한 이미지처럼 아버지가 헤매고 있을 줄도 혹은 혹독한 세상을 세한으로 느끼고 있다.

⑤ (나)에서는 '까치 한 쌍'과 '까치집 하나'가, (다)에서는 '새 한 마리'가 그림에 추가되고 있다.

02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나)에서는 '따스다'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세한을 이겨 낸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며, (다)에서는 '춥다'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명사 혹은 말줄임표로 시행을 끝맺는 등 생략과 압축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두 작품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아버지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제시되는데 이것이 과거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③ (나)의 공간은 「세한도」라는 그림 속이므로, 현실적인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없다. (다)에서만 현실적인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와 (다)에서는 유사한 시행의 반복이 드러나지만,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0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2연의 '까치집 하나'는 '빈 공간', '고목나무', '저승의 하늘'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까치집 하나'는 화자의 내적 고뇌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1연은 이승의 세계를, 2연은 저승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④ 1연과 2연의 '울음'은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므로, 삶과 죽음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세한의 추위를 질화로의 '따뜻함'으로 극복하고 있다.



고전 시가

기출로 **3년** 익히기 1

본문 038~040쪽

01 ③ 02 ⑤ 03 ①

[연행가 - 홍순학]

해제 이 시가는 1866년(고종 3년) 3월, 고종이 왕비를 맞이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사신 일행이 청나라의 연경(북경)으로 갈 때, 서장관으로 함께했던 홍순학이 130여 일 간에 걸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기행 가사이다. 이 작품은 총 3,924구로 이루어진 장편의 가사로,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을 사용하여 일반 백성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기까지는 고국의 산천과 이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적이면서도 정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강을 건너 후 연경에 이르기까지는 청나라의 풍물, 세태, 자연 풍경 등을 치밀한 관찰력으로 묘사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 가사의 화자는 청의 문물에 놀라워하며 본받을 만한 풍속에 대해서는 그 실용성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도 보이지만, 존명 배척(尊明排淸: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배척함)의 태도를 바탕으로 청나라 문화를 경시하는 의식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의 한계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사신의 일행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견문과 감상

특징 •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소박한 표현이 두드러짐
• 치밀한 관찰을 통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구성 1~15구: 청나라 신하들과 글(한자)을 통해 의사소통함
16~26구: 황제가 하사한 상과 상차림을 받음
27~40구: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향길에 오름

01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이 시가의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과 자명악과 같은 낯선 문물을 접하기도 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답을 나누기도 하며,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상과 잔칫상을 받아 보는 등 이색적인 경험을 하며 느낀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가의 후반부에서는 청나라 사신으로서의 책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회환할 때의 심정을 '시원하고 상연하구나'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는 주로 청나라에서의 낯선 경험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고 있을 뿐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뻑 찍어 /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에서 학문과 관련한 사물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필답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화자가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여 상과 상차림을 받고 있지만,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를 통해서 화자가 북경의 송문문에서 통주를 향해 귀국하는 도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02 표현 표현상의 특징

㉠의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은 화자가 청나라로 올 적에 심은 곡식을 추수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통해 그만큼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의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자명종과 자명악이 내는 소리를 묘사한 것일 뿐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다음 행의 '처음 인사'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은 처음 본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이 고급 목재로 만든 의자에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닌 형용사로, ㉡은 일행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쁘게 준비를 하는 떠들썩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은 귀환 보고를 발송하여 먼저 귀국하는 군관에게 전송하였다는 인과 관계를 나타낸 표현으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시어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A]에서 화자는 청나라 사신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답으로 의사 소통을 주고받는다. '간담을 상응하여'는 '간과 쓸개, 즉 속마음이 서로 응하여'라는 의미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B]에서 연회를 마친 화자가 '뜰에 내려 북향'한 것은 청나라 황제가 있는 북쪽을 향해 구고두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와 [B]의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청나라 사람들과 한자로 '필답'을 나누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B]의 '구고두'는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아홉 번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조선 사신 일행이 '구고두'를 하는 것은 황상(황제)이 자신들에게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푼 은혜에 의례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④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난처해하다가 필답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B]의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칫상을 받았으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에 화자가 난감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언어가 달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곱밥'은 화자가 자신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잔치 음식을 나열한 것이다.

알아두기 기행 가사

기행 문학의 한 형태로,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견문과 소감 등을 적은 가사이다. 대체로 3·4조나 4·4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행 가사는 크게 '관유 가사', '유배 가사', '사행 가사'로 나눌 수 있는데, '관유 가사'는 나라 안팎의 산천이나 명승지를 유람하며 쓴 것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이 여기에 속한다. '유배 가사'는 귀양살이의 경험과 견문을 읊은 것으로, 안조원의 「만언사」, 김진형의 「북천가」 등이 있다. '사행 가사'는 사신 행차의 일원으로 외국을 여행한 견문과 감상을 기록한 가사를 말하는데,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 등이 있다.

01 ④ 02 ③ 03 ④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해제 이 글은 고려 속요의 개념과 기원 그리고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문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이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연의 끝에 후렴구를 넣거나,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부분을 추가하는 등과 같은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된 과정에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시경』의 ‘풍’과 구별되는 고려 속요의 특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특징 • 『시경』의 ‘풍’과 비교하여 고려 속요의 특징을 제시함
•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

나 [동동 -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각 달의 세시 풍속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월령체 형식의 고려 가요이다.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도의 뜻을 담고 있는 서사와 달리 나머지 12연은 열두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임에 대한 찬양, 떠나간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상이 일관되지 않고, 각 연의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작품은 원래 연가(戀歌)적 성격의 민요였으나, 이후에 궁중 연악(宴樂)으로 편입되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에 대한 송추과 연모

특징 •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구성된 월령체 노래임
• 임을 다양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구성 서사 : 임의 덕과 복을 기원

정월령 :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이월령 : 임의 훌륭한 인품을 찬양

삼월령 : 임의 아름다움을 찬양

다 [가시리 -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이별의 정한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만, 곧 다시 돌아오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하고 있으며, 간절한 형식과 진솔한 어조로 임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 총 4연으로 된 분연체 형식임
• 반복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강조함

구성 1연(기) : 이별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2연(승) :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3연(전) : 임을 붙잡고 싶은 감정의 절제와 체념

4연(결) :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01 이론 세부 정보의 확인

(가)의 3문단에서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상·하층이 함께 노래를 향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하층의 노래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에서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라고 밝히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풍이’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라고 밝히고 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02 시어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게 덕과 복을 바치겠다는 송추(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각 연마다 반복되어 연을 분절시키며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후렴구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사>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증줄가 대평성디’는 특별한 의미 없이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간 후렴구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없고, 이별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위 증줄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A]에서는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제1행~제2행)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제3행~제4행)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의 제1연에서는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제2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제시할 뿐,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정월령>은 냇물과 대조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은 이미 짝을 지은 조화로운 모습이고, (나)의 ‘만춘 돌윗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모두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이라는 평을 통해 [A]에서 화락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가시리’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별의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풍속 교화의 시초'라는 평을 통해 [A]에서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람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이월령>에서는 임을 '높이 켜 등불'에 빗대어 임이 모두가 우려로 불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고, (다)에서는 떠나는 '님'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알아두기 월령체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한 시가의 형식을 의미한다. 작품에 따라 12개 혹은 13개(서사를 추가하는 경우)로 분절하며 각 연은 흔히 그 달의 자연, 기후, 세시 풍속 등을 반영하여 표현한다.

실전 완성하기 1

본문 044~045쪽

01 ⑤ 02 ⑤ 03 ④

[어부단가_ 이현보]

해제 고려 때부터 12장의 장가와 10장의 단가로 전해져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개작하여 9장의 장가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는데, 이 중 장가 '어부가'와 구분하여 '어부단가'라고 부른 작품이다.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총 5수의 연시조로, 어부 생활의 흥취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전래되던 '어부가'의 매력에 사로잡혀 노랫말의 순서와 내용을 바로잡고 다듬은 것으로,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생활

특징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구성 1수 : 속세를 잊고 사는 어부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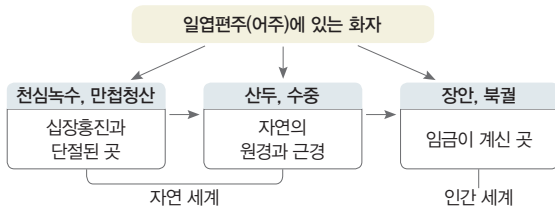
2수 : 자연에서의 무심한 생활

3수 : 자연의 참된 의미

4수 : 자연 속에서의 흥취

5수 : 제세현의 출현을 바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이현보(1467~1555) : 조선 중기의 문신. 76세(1542년) 때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 만년을 강호에 묻혀 시를 지으며 살았다. 조선 시대의 강호 시조 작가로 국문학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1수에서는 인간 세상을 다 잊고 있음을, 2수에서는 강호에서의 무심한 삶을, 3수에서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4수에서는 자연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5수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삶이 각 수마다 강조되고는 있지만 특정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수의 종장에서는 '날 가는 줄을 알랴'라고 하여 어부 생활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5수의 종장과 종장에서는 '잊은 때가 있으랴', '제세현이 없으랴'라고 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연을 천 길 깊이의 푸른 물인 '천심독수'와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인 '만첩청산'이라고 하며,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인 '심장흥진'을 가리고 있다고 하였다. 즉,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과 속세라는 공간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화자는 3수에서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먹는다고 하고 있다. 연잎과 버들가지의 푸른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탈속의 공간인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④ 4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산봉우리의 한가로운 구름이 이는 모습에서 물 위의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화자는 현재 배 위에 있으므로 시선이 먼 곳(원경)에서 가까운 곳(근경)으로 이동한 것이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5수에서 화자는 서울 쪽을 바라보며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고 있으면서도, '제세현'이 없겠느냐며 자신의 시름이 아니니 '두어라'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세현'을 화자 자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부'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삶을 그리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보기>에서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어부의 삶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② '심장흥진'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속세와 단절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기>에서 작품 속 화자가 주로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연결된다.

③ '일반청의미'는 자연의 참된 의미라는 뜻으로 어부 생활의 자부심이 드러난 표현이다. <보기>에서 어부가 이상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④ '복궐'은 임금이 있는 궁궐로 화자는 이를 생각하며 속세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간혹 속세를 향한 화자의 고민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0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화자는 4수에서 산두의 한운과 수중의 백구를 다정한 것이라 하며 이들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운과 백구는 화자가 시름을 잊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겠다는 물아일체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 '일엽편주(一片舟)'는 한 척의 조그마한 배라는 의미로 현재 화자가 있는 장소를 의미할 뿐, 화자가 이 배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 '강호(江湖)'는 자연, 즉 탈속적 공간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미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강호'를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 '노적화총(蘆荻花叢)'은 갈대와 물억새의 꽃떨기를 이르는데, 화자는 이곳에 배를 묶어 두고 연잎에 싹 밥과 버들가지에 꿰 물고기를 먹고 있다. 따라서 '노적화총'은 화자가 있는 공간의 일부를 표현한 것일 뿐, 달관의 경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 '시름'은 임금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스스로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강호에 온 것이므로 임금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걱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1 ③ 02 ② 03 ④

[안분가 - 조위]

해제 이 시가는 조선 전기의 학자였던 작자가 순천으로 유배된 뒤 자신의 심정을 담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임과 이별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천상 백옥경에 있는 임을 그리며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소연하고 있다. 서사에서 임(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시한 후, 본사에서 무고하게 유배를 당하게 된 사연과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서와 함께 일편단심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유배 가사의 효시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크며, 후대 가사인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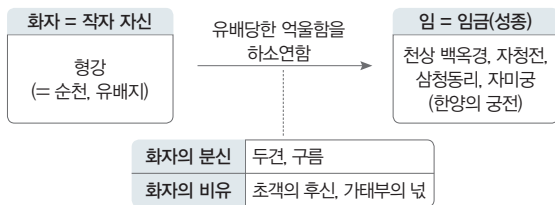
특징 •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의탁하여 표현함
•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

구성 서사(1~10구) : 임금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알리고 싶은 마음

본사 1(11~30구) : 충신인 자신이 유배당한 사연

본사 2(31~34구) : 무고한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 온 사연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조위(曹偉, 1454~1503) : 조선 전기 성종 때의 문신이자 학자로, 성리학의 대가였으며 초기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박식하고 문장이 뛰어나서 문하에 많은 문사가 배출되었다. 명나라에 갔다가 오는 도중 무오사화가 일어나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01 표현상의 특징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맑은 서리를 의미하는 ‘무서리’라는 시어를 통해 늦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는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무서리가 섞여 친다는 의미 역시 무오사화가 일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서사에서 ‘홍중에 쌓인 말씀 실컷 사뢰리라’라고 하여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알리고 싶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임이 살고 있는 곳은 ‘천상 백옥경’, ‘자청전’, ‘삼청동리’, ‘자미궁’처럼 천상의 공간이며,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형강(荊江)’에 있는 처지이다.

④ 이 작품에서는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천문(天門) 구만 리’, ‘억만(億萬) 번 변화하여’, ‘천층浪(千層浪)’, ‘백 척 간’, ‘억만 장’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오색실 이름 짧아 님의 웃을 못 하여도’에서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하는 어조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B]에서 장안에 무서리가 섞여 졌다는 것은 무오사화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모수죽(日暮條竹)’은 두보의 시 「가인(佳人)」에 나오는 구절로, 해가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해 서 있으니 푸른 소매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표현을 통해 무오사화로 인해 작자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객(楚客)’은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간 굴원은 먹라수에 빠져 자살한다. ‘가태부(賈太傅)’는 중국 전한 문제 때의 문인이자 학자인 ‘가의’로, 당시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자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에 비유해 ‘복조부(鵬鵠賦)’와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다. 화자가 자신을 ‘초객의 후신’이자 ‘가태부의 님’으로 비유한 것은 자신 역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③ [C]는 까닭 없는 회오리바람으로 관리 사회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구로, 화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무오사화로 인해 화를 입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D]는 노나라의 흐린 술이 초나라의 수도인 한단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진나라 사람이 취한 것이 월나라 사람이 웃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빗대어 화자 자신 또한 무오사화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 ‘성문 모진 불’은 무오사화를 비유한 표현이고 ‘옥석’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즉,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라는 의미로 억울하게 유배당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아 두기 무오사화(戊午士禍)

조선의 사대사화(四大士禍) 중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화이며, 사초 문제(史草問題)로 발단되었기에 무오사화라고 한다. 연산군 4년(1498년)에 「성종실록」이 편찬되었는데, 이때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는 참소를 올렸다. 연산군은 이 일로 사림파 다섯 명을 사형시키고,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 실록 편찬과 관련된 부류와 대신 등을 유배 보내거나 파직시켰다.

0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벗으로 그려지는 ‘백구’는 화자가 자연과 물아일체가 된 경지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천문(天門) 구만 리’는 하늘 문까지의 거리가 구만 리라는 것인데, 이는 실제의 거리가 아니라 그만큼 임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②, ③ ‘두견’과 ‘구름’은 화자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본신으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약수(弱水)’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 강으로,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을 정도여서 아무도 건널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고전 시가에서 주로 화자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설정되는데, 이 시가에서도 화자가 임에게로 가는 ‘구름길’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01 ⑤ 02 ① 03 ②

[전가팔곡 _ 이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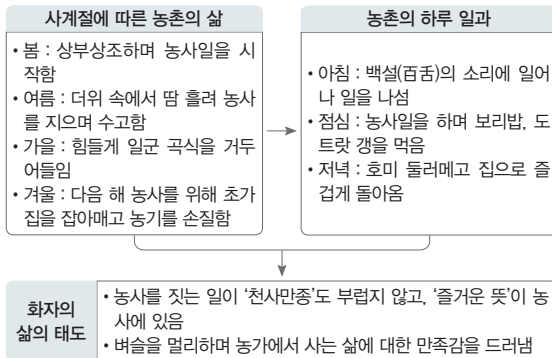
해제 이 시가는 전원에 귀의한 작자가 농촌의 풍경과 농민의 노고를 소재로 하여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연시조이다. 이 시조에서 화자는 세상 밖의 일, 즉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세상을 멀리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작자는 단순히 농촌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삶 속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작자는 농촌에서 사계절에 따라 농부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수고를 소개하며, 하루 일과 속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농가의 일과 그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구성** 1수 : 풍년에 대한 기원 : 원풍(願豊)
 2수 :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시작함 : 춘(春)
 3수 : 땀 흘리며 농사일을 함 : 하(夏)
 4수 : 농사지은 곡식을 먹는 만족감 : 추(秋)
 5수 : 내년 농사일을 준비함 : 동(冬)
 6수 : 하루 농사의 시작 : 신(晨)
 7수 : 농부들과 먹는 소박한 음식 : 오(午)
 8수 :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 : 석(夕)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이휘일(1619~1672) :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농촌에 머물며 생활하였다. 사대부로서 전원에 처하면서 풍년을 이루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농민들을 교화하여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영해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존재집』, 『구인략』, 『홍범연의』가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이 밖에 천사만종(千駟萬種)을 부러 무엇하리오’는 농사일을 하며 세속에 달관하여 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부럽지 않다는 것이고, ‘이 중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을 드러낸 것이다. 모두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방식으로, 농촌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동일한 행이 반복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은 사계절과 하루의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은 농촌이라는 전원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은 작자가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을 뿐,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에서 작자는 자신이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농민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6수의 ‘일거라 아히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에서 알 수 있듯이, 청유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농민과 행동을 같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과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작자가 농민을 교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은 ‘따비’, ‘삿’, ‘띠’ 등 농사일과 관련된 일상의 우리말을 활용하여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작자가 ‘결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하고’라는 부분과 상통한다.

③ ‘백설이 소리한다’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말로, 새벽에 일어나 밭을 보러 가는 작자에게 직접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자꾸나’라는 청유형을 통해 화자는 농민과 행동을 같이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농민의 삶에 대한 작자의 정서적 친밀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즐거운 뜻’은 농사일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작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알아두기 조선 후기의 전원 시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전원 시조는 농촌 생활 속에서 사대부로서 은거하는 명분을 찾거나 교화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는 멀리하고, 농사일을 하는 수고와 보람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선비의 거동을 버리고 농사꾼이 되어 직접 농사에 참여함으로써 훈민 시(訓民詩)를 농민 시(農民詩)로 바꾸어 놓고자 한 것이다. 「전가팔곡」의 작자인 이휘일은 농사일이 결코 작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펼쳐 나간다면 만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대도(大道)라고 말하였다. 농부들과의 친화를 도모하여 이루어 나가는 삶은 이 시대의 사대부들에게는 중요한 인식 전환이었다.

0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화자를 버린 대상으로, 화자가 현재 멀리하고 있는 속세의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화자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삶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뿐, 속세를 그리워하거나 미련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점에서 과거 속세에 머물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③ ‘견무’는 밭이랑 사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공간이며, 화자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화자가 기피하는 곳으로, 화자가 긍정하는 ‘견무’와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배끓는 농부들’은 아침부터 고된 농사일을 하여 배가 고픈 상황이다. 화자는 이들에게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갠을 하여 제때에 먹이라고 하였다. 농민들이 배가 고픈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01 ① 02 ① 03 ④

가 [님이 오마 하거늘 ~ _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임을 그리워하며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사실시조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보고 임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서둘러 뛰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비록 남을 웃길 뻔한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그만큼 임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임을 기다리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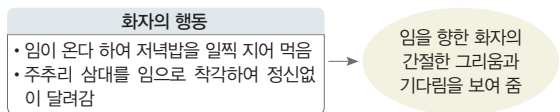
특징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과장된 행동 묘사,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

구성 초장 : 임이 온다는 소식에 일찍 저녁을 먹음

중장 :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감

종장 : 자신의 행동을 겹언쩍게 여김

작품 한눈에 보기



나 [서경별곡 _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그런데 다른 이별시와 달리 이 노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서경'과 자신의 생업인 '질삼뵈'도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한편,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하고 있다. 또한 하략된 부분인 제3연에서는 임이 강을 건너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질투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던 기존의 여성들과 달리 이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상을 보여 준다. 한편, 이 노래는 3음보, 분연체, 후렴구 등 고려 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연이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서경을 중심으로 서민층에서 불리다가 궁중의 음악으로 채택되어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에 실려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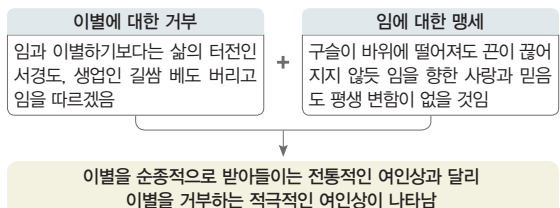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시어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구성 1연 : 이별을 원하지 않는 마음

2연 :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작품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임을 마중하러 달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③ (가)와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사물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실수를 '주추리 삼대'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나타나, (나)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의 화자는 임을 마중하러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별의 슬픔을 인고하는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02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는 '주추리 삼대'라는 사물을 임으로 착각하여 벌어지는 화자의 과장적 행위를 묘사하여 시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대신 드러내는 표현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는 화자가 중문을 나서 대문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 여러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의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다고 하고 있다. 즉, 사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착각으로 인한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④ (가)에서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던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서둘러 뛰어가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곰비남비 남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와 '워령 총창'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임을 마중하러 달려나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구슬리 바위에 디신들'은 화자의 사랑에 시련이 닥친다는 가정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이 뒤에 화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임과의 결속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임에 대한 믿음의 맹세를 강조하기 위한 가정적 상황일 뿐,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줄가나'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여음구로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적 효과를 주며 고려 가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② 화자는 임이 떠나가면 화자의 생계 수단이자 생업인 '질삼뵈'를 버리고라도 임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것도 감수하는 담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우러곰 꼴니노이다'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을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⑤ '신(信)잇도 그즈리잇가'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므로, 여전히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 ① 02 ⑤ 03 ④

가 [부벽루 _ 이색]

해제 이 시가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고려의 500년 역사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인간 역사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는 5언 율시의 한시이다. 화자는 영명사를 지나다가 고구려 동명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부벽루에 오르게 된다. 이곳에서 화자는 이제 퇴락해 버린 텅 빈 성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영화롭던 지난날을 회상하게 되고, 자연의 영원함과 대조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주제 역사의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

특징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조함

구성 1~2구 : 부벽루에 오름

3~4구 : 부벽루에서 바라본 풍경

5~6구 : 동명왕에 대한 회고

7~8구 : 역사의 무상함과 변함없는 자연

작품 한눈에 보기

변함없는 자연	유한한 인간 세상
조각달, 구름, 산, 강	텅 빈 성, 천손

작가 알기

이색(1328~1396) :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로 성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조선 태조가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했으며, 문하에 권근, 변계량 등을 배출하여 조선 전기 성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귀한 민족정신과 유구한 민족정기의 흐름을 노래한 작품들을 주로 창작하였다.

나 [봉내곡 _ 김재화]

해제 이 시가는 작자가 여름의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장편 기행 가사이다. 해금강과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유람하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출발 → 여정 → 목적지 → 회귀'의 4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작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유법, 대구법, 열거법, ஏ타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경치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이에 대한 작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금강산 유람의 전문과 감상

특징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 경관을 묘사함

구성 1~8구 : 섬의 구체적인 풍경 묘사

9~12구 : 섬의 풍경 예찬

13~18구 : 학포의 경치 묘사

작품 한눈에 보기

국도 십 리	학포
조그만 바다 가운데 있는 국도의 경치 묘사	창벽과 일곱 섬의 경치 묘사

작가 알기

김재화(1768~1841) : 18세기 중엽(영조 시기)에 활동한 문인으로, 도교·불교·풍수 사상을 두루 수용하여 각 고장의 풍속과 세태를 그린 작품을 창작하였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부벽루에 올라 느낀 인간사의 무상함을, (나)는 금강산의 국도와 학포를 유람하며 느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특정한 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천 년이 지나 늙은 바위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자연을 유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자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는 부벽루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곳에서 느끼는 화자의 무상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가)는 계절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계절적 배경은 제목인 '봉래산(금강산의 여름 이름)'에서 여름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가)는 인간사와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나)는 여행지에서 본 풍경을 표현한 것일 뿐 상징적인 소재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는 '달', '구름', '산', '강'과 같이 변함없는 자연과 '텅 빈 성', '천손'과 같은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인간 역사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물소리'를 매개로 고려 왕조를 회상하고 있을 뿐,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의 화자는 청자에게 '고국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라는 설의적 물음을 던져 고려의 멸망으로 인한 무상감을 극복하고 시세에 따라야 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라며 설의적 물음을 던지고 있으나, 이는 과거 동명왕에 대한 회상일 뿐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④ 두 작품은 모두 앞부분에서 먼저 경치를 읊은 다음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인간 세상의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알아 두기 선인교 나린 물이~ _ 정도전

- **해제** 고려 왕조를 회상하며 역사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로, 망국의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고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니 시세를 따라야 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시조이다.
- **주제** 고려에 대한 회고와 역사의 무상감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귀신의 짓이런가, 조물의 기롱인가'라는 표현은 국도의 경치를 이상함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짓이나 조물의 속임수와 할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병풍 친 듯 둥근 모양 사면으로 돌렸으되'라고 하여 국도 주변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무릎 아래 한 굽이 호수 유리같이 깔려 있고'라고 하여 학포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작자는 국도(國島)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여, 이곳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③ '국도 십 리'로 들어가는 여정과 '학포'를 돌아 동으로 가는 여정은 간략하게 제시하고 그곳에서 본 풍경들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어선을 종종 만나 각색 고기 구경하고 / 강요주 회 먹으니 그 맛이 신선하다'와 같이 작자가 여행을 하며 경험했던 일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재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01 ① 02 ② 03 ②

가 [평민 의식이 문학에 미친 영향]

해제 조선 후기는 서민들의 자아 각성에 의해 평민 의식이 성장하였고 문학 담당층 또한 평민과 부녀자로 확대되어 그들의 삶과 정서가 작품에 녹아들게 되었다. 그 예로 시조는 정형성을 탈피하며 내용의 다양화를 꾀하였고, 민요와 같이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과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징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특성을 하위 갈래를 예로 들어 설명함

나 [논밭 갈아 기음 매고 ~ _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농부의 일상사를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사실시조로, 농민의 바쁜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된 생활 속에서도 삶의 흥취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선조들의 낙천적인 삶의 태도와 소박한 풍류를 발견할 수 있다.

주제 농민의 바쁜 일상과 흥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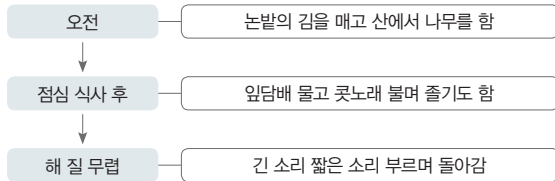
특징 농민의 바쁜 일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구성 초장 : 논밭의 김을 매고 땀나뭇마루하러 갈 준비를 함

중장 : 산속에서의 일과 휴식

종장 : 풍류를 즐기는 농민들의 모습

작품 한눈에 보기



다 [잠노래 _ 작자 미상]

해제 '잠노래'는 잠을 소재로 한 많은 민요들 가운데 하나로, 바쁜 낮의 일과를 보내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바느질과 다림질 등 남은 집안일을 해야 했던 옛날 여인들의 삶의 고달픔이 담겨 있다. 지친 몸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낮의 피로로 인해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불렀을 이 노래를 통해,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해학으로 풀어 가는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부녀자들의 삶의 애환을 주로 읊은 노래를 '부요(婦謠)'라고 하는데, 잠노래도 부요 중 하나이다.

주제 여성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

특징 잠을 의인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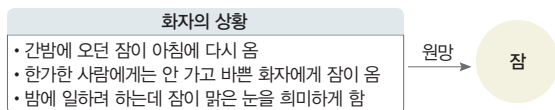
구성 1~3구 : 염치없이 자꾸 찾아오는 잠

4~10구 : 바쁜 자신에게 자꾸 오는 잠에 대한 원망

11~16구 : 바느질을 방해하는 잠

17~19구 : 맑은 눈을 희미하게 하는 잠

작품 한눈에 보기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에서는 농민들의 일상을 진술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농촌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일 뿐, 평민들의 갈등 상황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다)는 민요에 해당하는데, (가)에 따르면 민요는 민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민족의 보편적 감정을 담아내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다)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며 고달픈 노동에 시달렸던 부녀자들이 가졌을 보편적 감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농촌에서의 일과와 (다)의 부녀자들의 바느질은 평민층에서 주로 하던 일로, 평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와 (다)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율격을 따르고 있지만, (나)의 경우 사실시조로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다. 즉, 초장, 중장, 종장이 길어져 4음보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4·4조, 4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다)와 비교할 때, (나)는 형식의 파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고된 노동 후에 노래로서 힘들을 달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잠이 오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를 통해 고달픈 노동으로 인한 애환을 풍류나 해학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당시 평민들의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02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나)는 농부들이 논밭의 김을 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땀나뭇마루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쉬는 모습과 이내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다)는 어제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오고, 저녁을 먹은 후부터 밤늦게까지 달려든다며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잠아 잠아', '이 내 잠아', '가라 가라' 등과 같이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잠을 쫓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지만, (나)에서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논밭의 김을 매고 산에서 땀나뭇마루한 후 도시락을 먹고 쉬다 되돌아오는 농부의 일과를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바느질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일의 과정이 나열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일관된 어조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다)에서는 잠을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자연물이나 기타 소재를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그런 사람'은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주야에 한가하여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화자는 잠이 그런 한가한 사람에게나 갈 것이지 왜 바쁜 자기한테 자꾸 찾아오는 것이냐며 잠을 원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염치 불고'와 '검치 두덕'은 염치가 없고 욕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잠의 속성을 의인화하여 잠이 쏟아지는 화자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는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밤에도 자지 못하고 잠을 쫓아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든다고 하여, 잠을 참기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이 졸고 있는 것이 사실 자신은 말쑥한데 잠이 자신의 두 눈을 오가며 묘수를 피우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며 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대 소설

기출로 11월 익히기 1

본문 062~064쪽

01 ① 02 ③ 03 ⑤

[상대 _ 염상섭]

해제 이 작품은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계급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의관과 위선적인 개화 지식인 상훈, 합리적이거나 보수적인 지식인 덕기의 삼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 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인 병화, 조의관의 첩이자 물질주의자인 수원집 등을 통해 근대적 과도기인 1930년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제 삼대에 걸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의 갈등

특징 •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을 보여 줌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작가 알기

염상섭(1897~1963) : 서울 출생으로 1920년 『폐허(廢墟)』지 동인에 가담하여 문학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첫 발표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 소설로 평가되며, 그 후의 대부분의 소설은 전형적인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으로 일관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만세전(萬歲前)」,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금반지」, 「고독」과 장편 「삼대(三代)」 등이 있다.

01 인물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한 천 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고,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①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A] 중간 부분에서 상훈의 부친이 상훈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상훈의 부친이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B]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상훈에게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B] 중간 부분에서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덕기가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B]의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세간 값으로 돈을 쓰는 상훈에게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서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덕기가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B]에서 아버지인 상훈은 자신이 산 세간 값을 아들이 계산해 주지 않고 간섭하는 것과 정미소 장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을 나무라

고 있지,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조의관은 아들 상훈이 학교에 돈을 디밀고 자신이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한 치부를 드러내며 책망하고 있으나, [B]에서 상훈은 아들 덕기의 치부를 들추어 책망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 상훈은 아버지가 돈을 주고 족보를 사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지 않지만, [B]에서 덕기는 아버지 상훈이 처한 상황을 동정하고 있다.

④ [A]에서 조의관은 아들 상훈이 자신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사는 것을 간섭하자 이를 못마땅해하고 있고, [B]에서 상훈은 아들 덕기가 자신이 세간을 들이는 데 돈 쓰는 것을 간섭하자 이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⑤ [A]에서 아들 상훈은 좀 더 유리한 데 쓰지 않고 족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아버지 조의관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B]에서 아들 덕기는 불필요하고 과하게 세간을 사는 데 돈을 쓰는 조상훈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은 영감의 시선에서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은 덕기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덕기의 심정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타락해가는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조의관으로 일정하고, ㉡에서는 덕기로 일정하다.

②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인 인물인 조의관의 행동과 의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고, ㉡에서는 덕기의 시선으로 본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③ ㉠에서 조의관은 아들 상훈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에서 덕기는 상훈의 행동은 못마땅하게 여기나 그의 심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으므로 낮게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에서 상훈에 대한 조의관의 평가는 옳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나고, ㉡에서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는 심리는 이해하나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기출로 11월 익히기 2

본문 065~067쪽

01 ⑤ 02 ② 03 ⑤

[큰 산 _ 이호철]

해제 이 작품은 ‘나’의 집 마당에 떨어진 고무신짝에 관한 사건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조차 고무신짝을 불길하게 여겨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사람

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삶의 근원이 되는 '큰 산'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 소재의 상징성을 통해 주제를 암시함

• '나'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심리를 표현함

작가 알기

이호철(1932~2016) : 함경남도 원산 출생으로 1955년 단편 소설 「탈향」이 『문학 예술』에 추천되어 등단한 뒤, 월남 실향민의 애환과 비애를 통해 분단 문제의 비극성을 형상화하고,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풍자한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판문점」, 「땀아지는 살들」, 「나상」 등이 있다.

01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1문단에서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고무신 짝을 아내가 끄집어내어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린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때 '나'는 아내의 행동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했을 것이다.', '버렸을 것이다.'와 같이 아내의 심리와 행동을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주요 사건은 '나'의 집 마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다. '병치'란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둔다는 의미인데,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이고 인물 간의 갈등 상황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눈 내린 겨울 아침, 아내의 낭랑한 웃음을 듣고 '나'의 머릿속에 고향의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였으나 '나'는 이내 이것을 지워 버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등장인물인 '나'의 서술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배경 배경의 의미와 기능

아내가 '고무신 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린 후 열흘쯤 지나서 '나'와 아내는 밤새 내린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 이때 '눈 내린 겨울 아침'은 아내의 낭랑한 웃음과 어우러져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뜰 끝에서 아내가 다시 '고무신 짝'을 발견함으로써 밝았던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분위기는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나'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나'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라고 아박하게 대답하는 모습만 드러나 있다.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구름이 가득 차 있던 하늘이 깨끗이 개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가 '고무신 짝'을 발견한 아내가 "고무신 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 짝."이라고 말하며 공포를 느낄 뿐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아내'가 '나'에 대해 미심한 느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내는 불길한 '고무신 짝'을 대문 앞의 쓰레기통에 버린 것에 미심한 느낌을 가졌던 것 뿐이다.

⑤ 눈 내린 겨울 아침 무엇인가 빠져 있던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득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지워 버렸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이라고 말하는 '나'에게 아내가 "흥, 이치 좋아하시네."라고 하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것에서는 아기자기한 부부의 모습이 드러날 뿐,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아내가 쓰레기통에서 고무신 짝을 꺼내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린 후 '액땀'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내가 액운과 관련 있다고 여기는 고무신 짝을 '아무 집이든 담장 너머로' 던져 버렸다는 것에서 자신의 집만 아니라면 액운이 누구에게로 가든 상관없다는 식의, 자신의安危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③ 아내가 '완전히 멀고 있는' 목소리로 다시 발견한 '고무신 짝'이 액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에서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④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다고 하며 자신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말하는 '나'가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주술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에서 상이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1

본문 068~070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모범 경작생 _ 박영준]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마을에서 유일한 보통학교 졸업자인 길서는 일제에 의해 '모범 경작생'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농민들을 움직일 세력으로 '모범 경작생'이라는 칭호를 만들어 낸 것인데, 그런 의도에 맞게 길서는 일제에 동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개인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일제의 수탈 정책에 동조하는 한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고난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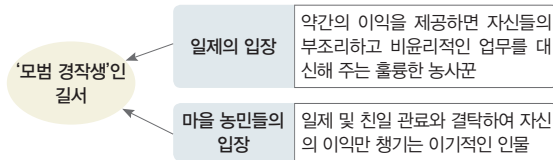
주제 일제 강점이라는 현실 속에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인간성의 상실

특징 반어적인 제목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전체 줄거리

주요 줄거리	'모범 경작생'으로 뽑힌 길서는 마을의 유일한 자작농으로, 농사 강습회에 참여함
	성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농사 강습회 때문에 서울로 간 길서를 부러워함
	서울에서 돌아온 길서가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김
	길서는 자기 잇속을 위해 일제의 착취를 돕고, 소작료와 관련된 마을 사람들의 부탁도 거절함
	마을 사람들은 길서가 호세 인상에 관여했음을 알고 분노하여 '모범 경작생' 깃발을 부수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박영준(1911~1976) : 광복 전에는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농민의 삶과 애환을 그린 반면, 광복 이후에는 도시 생활 또는 도시민 생활의 윤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단편으로 「모범 경작생」, 「용초도 근해」, 「목화씨 뿌릴 때」 등이 있고, 장편으로 「태풍지대」, 「열풍」 등이 있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기억하는 자신도 길서처럼 땅을 소유한 자작농이고 비료를 많이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겠다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읍내 지주 서재당과 교섭을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길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작농이고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러움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길서의 농사 실력을 부러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길서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 주는 대가로 밭에 묘목을 심어 팔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자와 파도 팔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또한 논에 비료를 많이 내어 벼의 수확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미국 품평회에도 출품하여 상금도 딸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얻는다. 이처럼 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

③ 면장은 길서에게 길서네 동네에서 호세를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다고 말하며, 길서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호세 착취를 도울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자네 동네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게니까. 그렇다구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고.'라는 발언에서 길서를 이용하여 호세 인상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모든 책임을 길서에게 떠넘기려는 면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성두는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 달래 보자고 부탁을 하지만, 길서로부터 단호하게 거절당한다. 이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상황으로도 모자라 호세까지 오르지, 상대적으로 호세가 오르지 않은 길서에 대한 성두의 반감은 심화된다. 이후 길서의 농간을 알게 된 성두는 격분하며 자신의 여동생인 의숙이를 만나러 온 길서를 응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의숙이는 길서의 농간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 성두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를 속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길서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할 뿐 길서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종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02 사건의 전개 양상

㉠의 사건은 마을 사람들이 길서의 농간으로 호세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알고 난 직후에 일어난 것이다. 이는 일제의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는 길서의 행태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일어난 사건이다. ㉠을 통한 일제에 대한 길서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길서는 자신의 논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끼는데, 이는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밭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밭말이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 사건은 길서에게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②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는 길서가 '모범 경작생'인 것을 부러워했지만, 길서의 의도를 알고 난 후에는 '모범 경작생'이라는 밭말을 부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길서의 위상은 과거와 달리 크게 추락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밭말은 일제의 농업 진흥 정책에 앞장서는 길서에 일제가 훌륭한 농사꾼이라는 의미에서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길서는 지주와 친일 관료의 착취를 간접적으로 도우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이기적인 인물일 뿐이다. 마을 사람들이 밭말을 부수 것은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이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밭말을 부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기적으로 행동한 길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당시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던 기만적인 농촌 수탈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길서가 면장에게 마을 사람들의 상황이 '무던한 편'은 된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도덕적 양심을 저버린 이기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길서의 이러한 발언 이후 호세가 올라서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면장의 요구는 길서가 양심적으로 꺼리게 되는 일이지만, 그 일에 협조하면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고'라는 면장의 말이 길서의 욕망을 자극하여 심리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길서는 면장의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결국 양심에 어긋난 선택을 하고 있다.

③ 길서는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 달래 보자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소작쟁의와 같은 당치 않은 짓'으로 몰아세워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④ 길서는 결국 개인적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에서는 벗어나지만, 길서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의 '호세가 심입 등으로 올라간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피해라고 볼 수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는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민들이 길서에게 지주를 찾아가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이지 좋은 날이 오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길서가 꼭 도우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절박하여 부탁하는 것이므로, 이를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별 가능성 없는 일이라도 매달려 본다.'는 의미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러한 길서의 성격을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 '제 눈에 물대기'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농민들은 논에 병까지 들어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입에 들어올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출근 굶기만 한다'는 의미인 '가난한 집 신주 굶듯'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④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길서가 일본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허탈한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2

본문 071~073쪽

01 ④ 02 ③ 03 ②

[레디메이드 인생 - 채만식]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일자라도 구하지 못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지식인의 비애와 좌절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1930년대 일제의 문화 정책으로 조성된 교육열로 과잉 공급된 지식인들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까지 일어나자 아무 쓸모없는 고등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가난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작품은 사회의 잉여 인력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P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비애와 자조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P가 어린 아들을 인쇄소에 취직시키고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일제 강점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풍자와 무능한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소외된 지식인의 무능함과 당시 사회의 지식인 양산 체제에 대한 비판

특징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어조를 통해 풍자 효과를 높임
전체 줄거리

P는 동경 유학까지 마쳤으나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고, 신문사에 취직하기 위해 K 사장을 찾아가나 거절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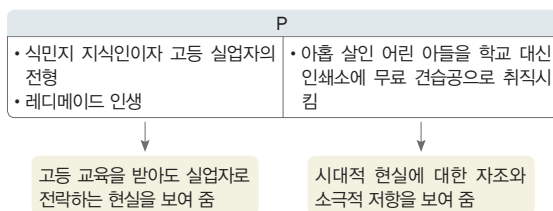
P는 자신이 인텔리인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과 같은 지식인 실업자를 양산해 낸 사회에 분노하기도 함

P와 M은 H를 졸라 그의 법률책을 전당포에 잡혀 돈 육 원을 만들고, 술집을 전전하다 집으로 돌아옴

P에게 아홉 살짜리 아들 창선이를 올려 보낼 테니 아버 구실을 하고 그러는 내용의 편지가 고향의 형으로부터 올

P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인텔리 실직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인쇄소 무료 견습공으로 맡기고 돌아옴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채만식(1902~1950) : 일제 강점기 및 광복 이후 타락한 인간 군상과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탁류」, 「치숙」, 「태평천하」, 「미스터 방」 등을 통해 묘사하고 풍자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의 내면 서술은 제한되고, P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P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만, 아들 창선이에 대한 P의 행동이 중심이 될 뿐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② P의 내면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배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고등 교육을 받고도 취업하기가 힘든 현실 속에서 P가 겪는 갈등, 즉 사회와 인물의 갈등이 주가 되며 인물 사이의 대결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P가 겪는 고뇌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단일한 사건이 전개될 뿐 여러 사건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고 있지는 않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화룻밥'은 창선이와의 만남을 앞둔 P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고고자 지은 것으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정성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① '편지'는 아들 창선이가 상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아들의 양육과 관련된 P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 ② '육 원'은 P가 주인 노인에게 내어 준 돈으로, 돈을 받은 주인 노인은 김치도 담가 주고 각두기에 간장, 된장까지 주며 호의적으로 바뀐다.
- ④ '양복'은 '갈린 아내'의 집에서 창선이에게 해 준 것으로 아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P는 아들이 입고 있는 양복도 벗겨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따라서 양복은 처가와 아내에 대한 P의 불쾌한 감정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⑤ '××인쇄소'는 경제적 곤란에 처한 P가 어린 아들을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곳으로, 아버지로서 P의 무능력함이 부각되는 장소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①은 문선과장이 어린 자식을 데려와 공장에 취직시키려는 P에게 아이에 대해 알기 위해 묻는 질문이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인쇄소의 문선과장은 자식을 당연히 공부시켜 지식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지식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에는 인텔리로서 노동자와 달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나타나 있다.
- ③ ㉢에는 지식인인 자신은 자식을 공부시킬 능력이 없으며, 이처럼 학교를 졸업하여 지식인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지식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④ ㉤에는 어린 자식을 공장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것이 애처롭기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사는 삶보다 노동자로서 사는 삶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고등 교육을 받아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본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에는 인간을 대량 생산되어 팔리기를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여기는 현실과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지식인의 자조가 나타난다.

01 ⑤ 02 ② 03 ④

[나무들 비탈에 서다 - 황순원]

해제 이 작품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의 사랑과 실존적 허무 의식, 그리고 자의식이 빚어내는 정신적 방황과 파멸의 양상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6·25 전쟁이 빚어낸 부정적 현실과 갈등의 양상을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통해 포착하면서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전쟁 상황을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소설에서 전쟁 상황이 만들어 낸 죄악과 그로 인한 죄의식, 그리고 이에 따른 인간의 파멸 과정은 동호와 현대라는 두 대립적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젊은이들의 방황과 갈등

- 특징**
- 상징적 소재와 인물의 내면세계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보여 줌
 - 6·25 전쟁을 겪은 젊은이들의 자의식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줌

전체 줄거리

수색을 나간 동호는 두꺼운 유리 속을 걷는 듯한, 현대는 수색 도중 발견한 여자와 아이를 죽이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음. 유구는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고 이 과정에서 김 하사가 죽음	
후전 협정이 체결되자 현대와 유구는 술집에 자주 가고 동호는 이들에 이끌려 술집 색시 옥주에게 순결을 빼앗김. 숙이에 대한 순정으로 옥주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던 동호는 동맥을 끊고 자살함	
제대 후 유구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탄 나고 현대의 도움으로 양계장을 운영함. 숙이는 현대를 찾아와 동호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음	
현대는 숙이의 요청으로 함께 송도에 가서 동호의 편지를 뜯어보지만 백지만 들어 있음. 숙이는 현대에게 동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현대는 충동적으로 숙이를 범함	
현대는 가깝게 지내던 평양집 기생 계향의 자살 방조죄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음. 유구는 현대의 아이를 임신한 숙이의 도움 요청을 거절함. 숙이는 모두가 전쟁의 피해자라며 아이를 낳겠다고 함	

작품 한눈에 보기

전쟁으로 인한 상처	대응 양상
숙이와의 순결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옥주와의 육체적 관계에 이끌림	동호 옥주가 청년단 단장과 같이 있자 둘을 총으로 쏘 죽이고 자신은 동맥을 끊고 자살함
수색 중에 발견한 여인과 아이를 죽이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음	현대 동호의 애인 숙이를 범함. 기생 계향의 자살을 방조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김 하사와 같이 탈출하지만 김 하사는 탈출 과정에서 죽음	유구 가정 교사를 하던 미란과의 연애 사건 이후 미란이 죽자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살아감
부모님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한 부역자를 총살함	선우 이등상사 술만 마시면 자신이 죽인 부역자 흉내를 내다 정신병원에 입원함
얼굴에 폭탄 파편을 맞아 거의 실명에 이름	석기 술집에서 임영을 기피하는 청년과 싸우다 단도에 찔려 한쪽 팔을 못 쓰게 됨

작가 알기

황순원(1915~2000) : 1931년 『동광』에 시 「나의 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1940년 단편집 『눈』을 출간하면서부터 소설에만 전념하였다. 주로 엄격하고 함축성이 강한 간결한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을 많이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독짓는 늑대인», 「소나기», 「카인의 후예」 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은 물론 인물의 내면세계까지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장면이 바뀌어도 서술의 초점이 인물이나 사건이냐만 달라질 뿐 서술자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호와 현대를 비롯한 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는 산속의 마을은 동란으로 마을 사람들이 떠난 빈집뿐이다. 사람도 없고 고요한 산속 경치일 뿐인데도 대원들은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원들이 6·25 전쟁의 한복판에 처해 있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이 작품은 대체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짧게 이루어져 있다. 동호가 유리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표현한 것이나,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현대가 보통 때는 느리고 익살도 곧잘 부리지만 전투태세에 돌입하면 동작이 야무져지고 민첩해진다며 서술자가 현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현대가 산속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마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숨을 죽인다, 살핀다, 뒤진다'와 같은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주는 동시에 장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동호가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안감, 압박감 때문이다. 따라서 '유리'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동호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보다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 주로 나타나 있다.

③ 대원들이 산속의 빈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긴장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여인과 아이를 발견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유리'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뒤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에서는 현재 대원들이 산속을 수색하고 있는 장면만 나와 있을 뿐이다. '유리'로 인해 인물들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지, '유리'로 인해 바짝 조였던 정신이 풀려 늦추어지는 이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이 글에서는 산속 마을을 수색하고 있는 동호와 현대를 비롯한 부대원들의 현재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동호나 현대의 현재 심리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동호가 느끼는 심리적 긴장감에 초점을 맞춰서 동호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서술되어 있고, [B] 이후부터는 동호를 둘러싼 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대원들의 수색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되고 있다.

② [A]에서 동호는 두꺼운 유리 속을 간신히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은 [C]의 후반부에서 새삼스레 주위가 너무 고요하고 누군가에게 감시 받는다는 느낌에 다시금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 들어 있다는 압박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박한 중압감은 [D]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낀 후, 극에 달하고 있다.

③ [A]~[C]까지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나 행동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D]에서는 현재와 마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B]~[C]에서는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람벽에 등을 붙이고 “꼭꼭 말어”, “손 들구 나와!”를 외친 후 집 안을 뒤지는 대원들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D]에서 여인과 두어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전 완성하기 4

본문 077~079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동행 - 전상국]

해제 이 작품은 낯선 두 사내가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旅路)형 구조로, 6·25 전쟁의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인물의 복잡한 내면 의식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전쟁으로 인한 실향의 슬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인물의 절망감을 깊이 있게 다룬 수작으로 평가된다. 형사와 범인이라는 대조적 인물을 동일 선상에 배치하여 긴장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인간애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현실 극복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객관적 시점을 견지한 간결한 문체로 추리 소설과 같은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제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인간애를 통한 치유

특징 두 인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객관적 시점과 간결한 문체를 통해 극적 효과를 높임

전체 줄거리

신분을 감춘 낯선 두 사내가 강원도 산길을 걸으며, 춘천의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큰 키의 사내와 억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큰길에 까지 동행함
억구는 6·25 전쟁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함
억구는 자신의 살인죄를 털어 놓으며, 아버지의 무덤에서 자살할 것을 내비침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 넘지 못했던 담을 회상하며, 억구의 정체를 알면서 놓아줌

작품 한눈에 보기

	억구	큰 키의 사내
과거의 기억	6·25 전쟁을 겪고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인과 보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감	도덕적 관념 때문에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낌
현재의 상황	살인자로 쫓기는 중이며, 아버지의 무덤에서 자살하기 위해 귀향함	억구를 추적 중인 형사로, 그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함

작가 알기

전상국(1940~) : 19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행」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유년 시절에 겪은 6·25 전쟁과 오랜 교직 생활에서 체득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담은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대표 작품으로 「우상의 눈물」, 「아베의 가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사건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전달하면서, 큰 키의 사내가 자신이 겪은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억구의 체포 문제로 큰 키의 사내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동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만 나타낼 뿐,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②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큰 키의 사내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주가 되므로 대비되는 갈등 양상 역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큰 키의 사내와 억구의 행동은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만, 이들의 외적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3인칭 관찰자로 인물과 사건에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의 논평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큰 키의 사내는 자살 결심을 내비치는 억구에게 자신의 남은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억구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속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억구에게 간접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억구는 온통 쌓여 있는 흰 눈을 보며, 눈이 내리는데 죄를 숨겨 무엇 하겠냐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화, 순화의 기능을 하는 눈에 동요되어 심리적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몇 걸음 물러서며 총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오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이는 그가 억구의 말을 듣고 긴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억구는 자신이 왜 득찰이를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맥 빠지고 풀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④ 와야리 근처에 이르자, 억구는 큰 키의 사내에게 구장네 집을 찾아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녹이라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구둣치 고개’를 넘어 ‘큰길’에 다다른 큰 키의 사내와 억구는 서로 나란히 걷게 되고, 억구는 큰 키의 사내에게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밝힌다. 큰 키의 사내는 끝까지 자신이 형사라는 사실을 억구에게

밝히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❶ 큰 키의 사내는 역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고, 역구는 '큰길'에 다다라서야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산길'은 역구와 큰 키의 사내가 비밀을 간직한 채 동행하는 공간이다.
- ❷ '큰길'은 좁은 '산길'에서 벗어나 길이 넓어지는 곳으로, 길이 좁아 일렬로 걷던 인물들이 나란히 걷게 되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기 시작한다. 즉, '큰길'은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도록 설정된 곳이다.
- ❸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진 옆에 누워야죠. 이제 가진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산소'는 역구가 살인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❹ 구장네 집에 가서 몸을 녹이려는 역구의 말을 통해 큰 키의 사내가 '와야리'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역구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산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동행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04 소재의 의미와 기능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후회스러운 기억이 있다. 이때 '담'은 도덕적 규범을 상징하는데, 어른이 된 큰 키의 사내가 역구를 이해하게 되면서 도덕적 규범을 어기더라도 그를 체포하지 않고 풀어 주는 행동을 한 것은 유년 시절 넘지 못한 '담'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❶ 큰 키의 사내는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며,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담'은 사회적인 금기와 도덕적 규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❷ 큰 키의 사내는 남의 '담'을 넘는 것은 분명 나쁜 짓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사회적 굴레에 얽매어 토끼를 구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 ❸ 새끼 토끼(소중한 생명)를 구하기 위해서는 '담'을 넘어야 했으므로, '담'은 생명을 지키려는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❹ 어린 시절 새끼 토끼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역구를 풀어 주는 행위는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이지만 인간애와 휴머니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고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5

본문 080~082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우리 동네 황 씨 _ 이문구]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와 농촌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와 그 속에서의 농민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황 씨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농촌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이 해체되고, 농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며 농민들끼리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현실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농촌 현실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 씨를 배척하기보다는 황 씨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산업화로 인해 밀려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 실상

특징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임

전체 줄거리

김봉모는 TV 때문에 마실을 다니지 않는 농촌 현실에 아쉬워하던 차, 산업 계장이 왔다는 이장의 말에 산 주인으로서 산으로 가던 중 얼마 전 일을 떠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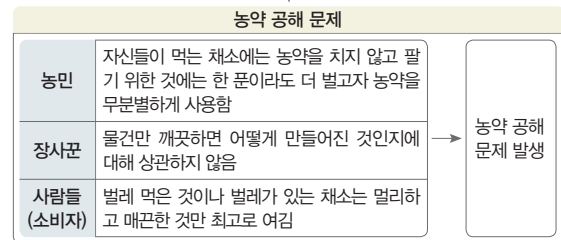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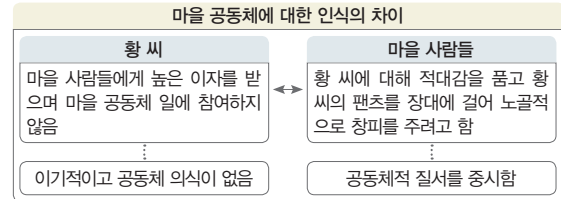
얼마 전 수재민 의연금을 모으자는 마을 반상회가 열려 구호 물품으로 쌀 두 되, 돈으로 육백 원 이상과 입던 옷가지, 장 따위를 얹어 내기로 결정함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은 황선주는 다른 집과 달리 쌀 가격을 들먹이며 성금을 오백육십 원만 내고 구호물자로는 자신이 입던 팬츠를 내놓음

황 씨의 인색한 태도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홍사철의 제안에 김봉모를 앞세워 황 씨가 내놓은 팬츠를 바지랑대에 걸어 마을 회관 앞에 세워 놓음

마을 모임에서 황 씨는 수재 의연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비판을 듣자 격분하고, 이웃 간에 서로 보살피며 아끼자는 김봉모의 말로 술자리가 끝이 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이문구(1941~2003) : 우리말 특유의 가락을 잘 살려낸 유장한 문장으로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작품화했다. 소설의 주제와 문제까지도 농민의 어투에 근접한 사실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 보여 농민 소설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작가이다. 주요 작품으로 「관촌수필」, 「유자소전」, 연작 장편 「우리 동네」 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는 황 씨의 팬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대화 이후 김 씨가 황 씨의 팬츠를 회관 앞에 매다는 것의 함의함을 생각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뒤의 농약 공해에 대한 대화에서도 김 씨가 자신이 한 일과 이에 대한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❶ 황 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불만과 농약 공해 문제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극적인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이 글에 농촌과 도시의 대립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농민과 도시인의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❸ 인물 간의 대화와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❹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볼 뿐 다수의 서술자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황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빨리 많은 수확물을 거두려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직접 구매해 먹는 실수요자들이 별레가 먹지 않은 매끈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황 씨가 심각하게 많은 양을 뿌리는 것은 그의 성격으로 보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최 씨는 황 씨의 팬츠를 걸자는 흥 씨의 의견에 기뻐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는 최 씨 역시 이전부터 마을 공익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 씨를 벌려 왔기 때문이다.

② 흥 씨는 마을 초입 인근에 발가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오가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황 씨가 낸 팬츠를 걸자고 제의하고 있다.

③ 이장은 황 씨의 팬츠를 걸어 두어 봤자, 황 씨가 제 것은 금테를 둘렀다고 하며 제 것이 아니라고 우길 작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④ 김 씨는 농산물에 농약을 퍼붓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03 소재의 의미와 기능

황 씨가 구호 물품으로 내놓은 팬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분개하고, 이를 계기로 뜻을 모아 황 씨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황 씨의 팬츠를 마을 초입에 걸어 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오답 풀이 ① 황 씨는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부를 축적한 대지주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자신의 흰 팬츠를 내놓은 것이 아니다.

② 마을 사람들이 황 씨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될 뿐, 마을 사람들이 이로 인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농촌이 도시와 경제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도시 사람들의 수요와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약을 많이 뿌리는 것과 관련되며, 황 씨의 팬츠와는 관련이 없다.

⑤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황 씨의 됃됨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입던 팬츠를 수제민 구호 물품으로 낸 것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마을 사람들이 황 씨의 팬츠를 마을 초입에 걸자고 하는 것을 이장이 탐탁지 않게 말한 것은 팬츠를 건다고 해도 황 씨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장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황 씨나 김 씨를 비롯한 농민들이 이익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여 키운 수확물을 판매하는 모습은 1970년대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민들이 양심을 속이는 일로, 타락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② 농약의 과도한 사용은 농약 공해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질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다.

⑤ 마을의 공동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황 씨를 비판함으로써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전 완성하기 6

본문 083~085쪽

01 ④ 02 ③ 03 ④

[아버지의 땅 - 임철우]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우연히 6·25 전쟁 때 죽음을 맞은 한 유골을 수습하는 동안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중첩과 배경 묘사를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유골을 수습하면서 과거에 대한 '나'의 회상이 중첩되는 구조는 '나'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상처를 보여 주면서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상처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와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유골의 수습이 끝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나'에 의해 묘사된 자연 배경은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지워 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 묘사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이해와 연결되면서 남북 분단의 상처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형상화된 것이다.

주제 이념으로 인한 분단의 상처 및 극복

특징 • 상징적인 소재 및 색채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부각함
• 인물의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이 중첩되면서 전개됨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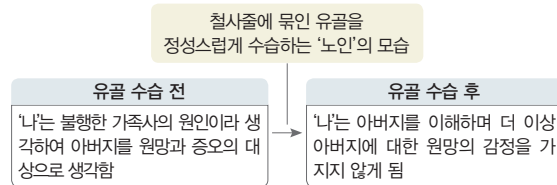
'나'와 오 일병은 기동 훈련을 대비한 경계용 참호를 파다가 철사줄로 공공 목인 유골을 발견하고, '나'는 어머니를 떠올림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빨치산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공포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함을 느낌

가갸집 노인이 '나'가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여 작은 봉분을 만들어 주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됨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내리는 함박눈 속에서 유골이 겪었을 고통과 아버지가 겪었을 고뇌에 공감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임철우(1954~): 1981년 단편 「개도독」으로 등단하였다. 임철우의 소설적 관심은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폭력, 그리고 그것에 의해 동요되는 개인의 모습에 있다. 그래서 그는 분단 체제의 현실과 5·18 민주화 운동 등 일련의 시국 사건들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들이 현실의 다양한 폭력 앞에서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대표 작품으로 「사평역」, 「봄날」 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는 간결한 문체와 장황한 문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이야기를 긴박하게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는 '나'가 불행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기증이 일어날 때 보이는 풍경이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 심리와 잿빛 풍경의 자연이 조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 글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인 '나'이며, '나'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신의 내면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나'가 유골을 수습하게 되는 현재와,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과거, '나'가 산을 내려오는 현재가 서로 중첩되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질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럴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느' 등에서 각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유해를 묶고 있는 철사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에서는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숨어 지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은 아버지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나'와 '나'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과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비극사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것이지,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인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하얀 물 사발'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떠놓은 것이므로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기다림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 ② '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마루 밑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를 쏘아보는 모습이다. 이렇듯 유년 시절 아버지의 환영은 검은색의 색채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는데, 이는 '나'가 아버지를 불길한 존재로 생각했으며 또한 두려워했음을 나타낸다.
- ④ 이 글에서 '까마귀'는 검은색의 이미지를 가진 새로, '나'에게 음산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존재이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대치 상황을 화해하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한다.
- ⑤ '눈'은 시체가 묻혔던 '밭고랑'도 지우고, 이념과 갈등으로 충돌했던 참혹한 현상이었던 '산'도 지우고, 그동안 '나'가 지녔던 편견과 물이해를 지우고, 아직도 큰 힘으로 음모를 획책하는 세력들인 '검은 새떼'를 지운다는 점에서 포용과 화해, 정화의 의미를 가진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얼어붙은 땅 밑에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의 환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부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유해가 살아 있을 적에 '빨갱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툭툭 치며 적개심 어린 말투로 말을 하는 소대장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소대장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념적 대립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 ② 수십 년 동안 땅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유골을 묶고 있는 철사줄은 이데올로기의 끈질김과 냉혹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가 아버지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

③ 충구는 항상 누군가를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차가움의 속성을 지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유해를 움아매고 있던 철사줄을 풀어 허공으로 던지는 노인의 행동은 유해가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이데올로기'는 이념을 의미하는 말로, 사회 집단의 사상과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즉,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말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펼쳐지면 자신과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행하는 폭력, 살인 등 인간성이나 인간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다.

IV

고전 서사

기출로 개념 익히기 1

본문 090~093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⑤

[사씨남정기 _ 김만중]

해제 이 작품은 처첩 간의 갈등을 그려 당시 사회의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가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유교적 규범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 씨를 고매한 인격을 지닌 인물로, 첩 교 씨를 간악한 인물로 설정하여 선악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현 왕후 폐출의 부당성을 풍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특징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작가 알기

김만중(1637~1692)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숙종의 폐비 조치를 반대하다가 유배되어 그곳에서 숙종을 참회시키기 위해 「사씨남정기」를,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구운몽」을 남겼다.

01 인물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글에서 사 씨가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묻자, 유모와 시비는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를 통해서, 사 씨가 왕비의 말을 통해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을 향한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은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서, 사 씨가 여승의 말을 통해서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④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여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를 통해서, 유 한림이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2 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㉔의 ‘배’는 여승 일행이 꿈에서 관음보살의 명을 받고 사 씨를 만나기 위해 타고 온 것이다. 따라서 ‘배’는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이라고 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꿈을 꾸던 사 씨는 ‘주렴을 내리는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통해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사 씨가 왕비를 만났던 비현실적 세계에서 유모와 시비가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② 사 씨는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라고 하며 ‘대나

무 수물’이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나무 수물’이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초상화’는 사 씨가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것으로,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다. 사 씨는 ‘초상화’를 본 후 향을 피우고 절하며 기원을 하고 있으므로, ‘초상화’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⑤ 유한림은 뜰 가운데 ‘병’을 놓고 사라진 노파의 꿈을 꾸고 난 후,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에 솟아난 물을 먹고 병을 낫게 된다. 이를 통해 ‘병’이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임을 알 수 있다.

03 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㉔는 사 씨가 꾸 ‘꿈’으로, 여기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 씨에게 왕비가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라고 하며 도움을 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㉔는 유 한림이 꾸 ‘꿈’으로, 여기에는 병세가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른 유 한림에게 노파가 찾아와 병을 낫게 할 병을 주고 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㉔와 ㉔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㉔에는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아황과 여영과 같이 사 씨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지만 ㉔에서는 그렇지 않다.

③ ㉔에서 왕비는 사 씨에게 “조금도 염려 마라.”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 씨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㉔에서도 노파가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할 ‘병’을 전하고 있으므로 유 한림이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㉔는 사 씨와 왕비가 대화를 나누는 꿈으로, 여기에는 사 씨와 유 한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㉔는 유 한림과 노파가 대화를 나누는 꿈으로, 여기에는 유 한림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유 한림에게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은 유 한림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기력을 회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자신들도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있다. 여기에는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질병을 얻는 것은 재앙이고,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에서 난 단 이슬과 같은 물을 먹고 치료가 된다는 것은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유 한림은 유배지에서 갖은 고초와 외로움으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사 씨의 꿈속에서 조만간 길을 인도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왕비의 예견이 꿈결에 관음보살로부터 여승 일행이 사 씨를 구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여승 일행과 사 씨가 만나는 장면은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④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한 물이 이후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자 사람들이 이를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01 ④ 02 ③ 03 ④ 04 ⑤

가 [춘향전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 작품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표면적 주제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신분적 갈등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과 탐관오리에 대한 서민의 저항 의식을 이면적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는 당대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민중의 꿈과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주제 의식을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의 형상화, 해학적인 표현 및 판소리 문체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주제 •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표면적)
•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면적)

특징 •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됨
• 해학적, 풍자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나 [춘향이별가 _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판소리 「춘향가」 중 인기를 끌었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잡가로, 수록된 부분은 춘향과 이몽룡의 이별 장면을 다루고 있다. 「춘향가」의 인기 있는 대목들을 선택적으로 축약, 변형했기 때문에 내용 전개상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주제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과 비애감

특징 • 화자의 역할이 해설자와 인물로 바뀜
•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구절을 반복함

구성 1~26구 :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춘향
27~39구 :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이별을 받아들이는 춘향

01 인물 인물의 심리 및 태도

(가)의 마지막 문단에 진시황의 분서 사건, 박랑사와 관련된 사건 등의 고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도련님'과의 이별 상황에 직면한 '춘향'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춘향'이 자신이 처한 이별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고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도련님'은 '춘향'에게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으로 인한 이별을 '누구를 탓하겠냐'라고 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이별의 상황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② '춘향'은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라고 하며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춘향'은 '제비가 되어 도련님 게신 처마에 집을 지어, ~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라고 하며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제비'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춘향'은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라고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별의 억울함을 천상의 존재(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2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에서 '춘향'은 '도련님'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부정하며 격정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한다. '춘향'은 자신을 두고는 못 간다는 말을 반복하며 '도련님'을 붙잡는데, 이 과정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별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 역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춘향'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치밀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춘향'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 '순사또',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 등에 하소연해도 그들은 같은 양반인 '도련님'의 편을 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양반에 대한 민중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춘향'은 '소지', '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양반들이 자신을 패소시키더라도 '팔만장안 역만가호마다 걸식하며' 종이를 구해 임금께 '상언'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춘향'은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할 수 없이' 주안상을 차려 내며 '이별 난궁이 잡수시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별이라는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이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에서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하장사 항우'로 하여금 '박랑사에서 쓰고 남은 철퇴'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깨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03 소재 소재의 의미와 기능

㉔의 앞부분인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를 고려할 때, '판결문'에는 춘향이 송사에 패소하는 내용, 즉 '도련님'에게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앞부분인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를 고려할 때, '명문'은 '도련님'이 '춘향'의 마음을 얻고자 쓴 글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㉔의 뒷부분인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를 고려할 때, '소지'에는 춘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㉔의 뒷부분인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을 고려할 때, '편지 한 장'에는 '도련님'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⑤ ㉔의 뒷부분인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를 고려할 때, '상언'은 '순사또'의 힘을 빌려 쓸 것이 아니라 '춘향'이 직접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혀 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04 표현 표현상의 특징

[B]의 1~2구에서는 화자가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3~16구에서는 화자를 '춘향'으로 바꾸어 '춘향'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화자가 해설자에서 '춘향'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춘향'과 '도련님'의 이별이라는 장면에서 춘향의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것이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라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등장인물이 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작품의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② [A]에서 '춘향'은 이별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련님'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는 세책업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B]에서는 첫 행에 '이별이라네'라며 작품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약적 설명은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B]에서는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춘향'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1

본문 098~100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①

[취유부벽정기 - 김시습]

해제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소설 중 하나로, 지상의 인물과 천상의 인물의 만남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역사의 상처가 어린, 옛 조선의 서울인 평양 대동강의 부벽정이 배경인 점이 독특하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기씨녀가 천상의 인물이라는 점이나 남주인공인 홍생이 죽어서 신선이 된다는 것에서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생과 기씨녀의 대화 중, 조선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작가의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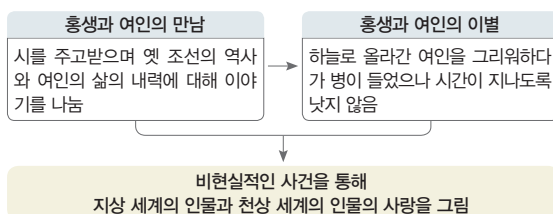
주제 지상 인물과 천상 인물의 사랑

특징 지상 인물과 천상 인물의 만남이라는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

전체 줄거리

홍생은 부벽정에 올라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는 시를 지어 읊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난
홍생은 처녀와 시를 지으며 즐기다 처녀의 신분을 묻고, 처녀는 자신이 천상계의 선녀라 함
시를 주고 받다가, 여인은 천명을 어길 수 없다며 홍생에게 이별을 고하고 하늘로 올라감
홍생은 떠난 여인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는데, 오래 지나도록 좋아지지 않음
홍생은 기씨녀의 주선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의 꿈을 꾸고 죽은 후 신선이 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김시습(1435~1493) :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승려가 되어 방랑 생활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에 남겼으며, 유교, 불교의 정신을 탁월한 문장으로 남겼다. 그의 저작은 자못 다채롭다고 할 만큼, 조선 전기의 사상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불 관계의 논문들뿐만 아니라 15권이 넘는 분량의 한시들도 남겨져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 여인은 홍생이 귀택의 성씨와 가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묻자 '나는 은 왕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자신이 지상 세계에서 살다가 불사약을 먹고 선녀가 된 내력, 그리고 선녀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짧은 문장을 사용한 부분에서 상황의 긴박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② 이 글에서 '사방을 살펴보니 산 속의 절에서는 ~ 별레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는 배경을 묘사한 것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위만(衛滿)이 이 시기를 틈타서 그 왕위를 차지하였으므로 조선의 왕업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소.'에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에 대한 비판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풍자적 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홍생이 여인이 떠나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었다.'라고 하며 꿈의 시작과 끝을 불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생이 시를 읊을 때 '비단 일장춘몽인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여인을 만난 것이 꿈속의 일이라고 한다면 '현실 - 꿈 - 현실'의 몽유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홍생의 친구들은 홍생이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낚시를 하고 왔다는 홍생의 거짓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홍생의 친구들이 홍생의 거짓 발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여인의 말을 통해 항아가 '인간 세상의 선경을 복지라 하지만은 모두 싸움터일 뿐'이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아가 지상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이 글의 앞부분에서 홍생은 여인의 시를 받아 보고는 기뻐했으나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 ④ 여인은 홍생에게 '글 잘하는 선비'를 만나고 보니 기쁘다고 하며 그의 글솜씨를 칭찬한다. 그러나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노둔한 붓'이라고 표현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여인은 문득 고국 생각이 나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고향을 굽어보다가 지상 세계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부벽정으로 왔다고 볼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홍생이 여인과 이별하는 것은 여인이 천명을 어길 수 없어 다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여인이 천상 세계의 인물이며 홍생이 지상 세계의 인물이라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일 뿐, 우리 민족이 겪는 시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여인은 자신이 '약을 먹은 지 몇 달이 지나자 문득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건강해지더니, 날개가 나서 신선이 되는 듯하였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인은 천상 세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생은 여인이 하늘로 올라가도 쫓아가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것으로 보아 천상계의 인물이 아니라 지상계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생과 여인의 만남은 지상계 인물과 천상계 인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② 여인이 '삼신산의 불사약'을 먹고 날개가 나서 공중에 높이 떠다니거나 '옥황상제가 계시는 하늘나라'를 가 보고 싶은 생각에 달나라에 올라가는 장면, 달나라 궁전인 '광한전에 들어가 수정궁으로 향하여 방문'하는 장면 등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고전 소설 특유의 전기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여인의 말을 통해 천상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신선'이나 '옥황상제', '황아'와 같은 인물은 천상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로, 신선 사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⑤ 여인은 자신을 '은 왕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라고 밝히며 '내 선조 기자(箕子)께서는 ~ 천 년이나 문물이 크게 빛나게 되었소'라며 선조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낸다. 기씨는 고조선 때 전설상에 있었다고 하는 기자 조선의 시조로 전해지는 인물로, 작가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기자 조선 - 고구려 -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라의 운수가 갑자기 곤경에 빠지고 ~ 조선의 왕업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소'라는 데에서 조선의 쇠락을 언급한 것은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을 드러내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

알아두기 전기 소설 『금오신화』

조선 초기에는 전기적(傳奇的) 성격을 띤 작품들이 주로 창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전기적이란 현실에서는 있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전 소설에서 귀신이나 천상의 인물과 인연을 맺거나 신선, 선녀 등이 나타나거나 주인공이 도술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전기 소설은 조선 전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금오신화』로,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등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A]에서 홍생은 여인과 이별한 후 병을 얻으며, 병상에 누운 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다. 이는 홍생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생기는 상사병일 뿐이다. 「망양지탄(望洋之歎)」은 '넓은 바다를 보고 탄식(歎息)한다'는 뜻으로, 나의 미흡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제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는 탄식이므로 빈칸에 들어가는 적절한 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연모지정(戀慕之情)'은 이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의미한다.

③ '염념재재(念念在茲)'는 '염념불망(念念不忘)'과 같은 말로, 자주 생각이 나서 잊지 못함을 의미한다.

④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여 잠 못 들거나 근심 또는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⑤ '전전반측(轉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미인(美人)을 사모(思慕)하여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표현이다.

실전 완성하기 2

본문 101~103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⑤

[홍계월전 _ 작가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그린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에 젖어 있던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비록 남장의 방식을 활용했지만 전통적인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남성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주인공인 계월을 근대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작품에 당대 여성 독자들의 사회적 성취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주제 홍계월의 영웅적 기상과 재능

특징 •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함
•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전체 줄거리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나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후 남장을 하고 자라 과거에 급제함

서번과 가달국이 중원을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전하여 적을 섬멸하고, 계월은 잃었던 부모와 상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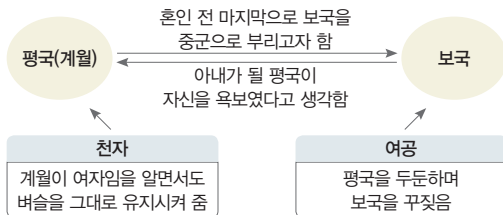
주요 줄거리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자 천자는 계월의 벼슬을 거두지 않고, 계월과 보국을 중매하여 혼례를 치르게 함

계월은 보국의 애첩을 죽인 일로 보국과 갈등을 겪지만, 전장에 함께 출전하여 위기에 빠진 황제를 구함

보국은 두 번의 위기에서 공을 세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화해한 두 사람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작품 한눈에 보기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보국은 평국의 전령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자리에도 늦게 나가고 군례 후에는 아버지인 여공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보국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평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평국과의 결혼도 본인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천자가 중매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어의는 평국의 맥을 잡고 남자의 맥이 아닌 여자의 맥이라며 이를 수상히 여기고 천자에게 고하고 있다.

③ 여공은 평국이 군례를 차려 보국을 혼낸 일을 듣고 오히려 보국을 혼내며 평국을 두둔하고 있다. 여공은 앞으로 평국이 보국의 아내가 되면 예전처럼 보국을 부리지 못할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군례를 차렸음을 헤아리고 평국을 천고에 영웅 군자라며 칭찬하고 있다.

④ 천자는 평국이 여자임을 알고 보국과 결혼하도록 중매한다. 또한 평국이

원수로서 마지막 군례를 차리고 싶다고 하자 바로 군사를 보내 준다. 이로 보아 천자는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원수라는 벼슬을 유지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평국은 여자가 병세를 진맥하고 갔으므로 자신이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곧 들롱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먼저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어 여자임을 밝히고 있다.

알아두기 「홍계월전」이 여성 영웅 소설로서 갖는 의의

계월이 남편인 보국과의 갈등을 능력의 우월함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했다. 또한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여성도 삶의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주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당대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 비판을 가하고자 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는 평국이 군법이 지중한데 제 시간에 대령하지 않은 보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말이다. [B]는 보국이 병이 나서 늦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병든 몸으로 매를 맞아 죽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유교적 가치관인 효 사상을 들어 평국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말이다. [C]는 평국이 보국의 변명을 믿지 않지만 용서해 주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국의 다짐을 받고 있는 말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계월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행군하고 보국을 부르는 것은 보국의 아내가 되기 전 자신의 부하였던 보국을 마지막으로 부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마지막 군례를 마치면 보국의 아내라는 여성의 지위로 돌아가야 하므로, 앞으로 계월 역시 다른 여성들처럼 출산과 양육을 담당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선 시대의 여자들은 가정 내의 일에만 전념해야 했고, 사회적인 일은 남자들이 도맡아 했다. 그러므로 과거에 급제하고,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벼슬에 오르는 등의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계월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군 서열상 원수인 평국에게 종군인 보국이 복종해야 하므로, 보국은 남자인 자신이 여자인 평국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여긴다. 또한 평국이 마지막 군례를 차린 것은 앞으로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보국의 아내로서 보국에게 복종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⑤ 계월은 여자 옷으로 갈아입은 후 눈물을 흘리고 부모도 이런 계월을 위로한다. 이는 앞으로 계월이 남자로서 누렸던 모든 지위를 반납하고 규종의 여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남장 모티프의 의미

남장이란 여성이 자신의 성을 감추면서 변장을 통해 남성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즉, 남장을 통해서만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남장을 벗는 순간 여성의 지위로 돌아와 기존 사회 질서와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여성들이 받은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소설에 반영되어 남장 모티프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㉔은 평국이 보국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우스우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로 ㉔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적군을 모두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을 이르는 말인 ‘일망타진(一網打盡)’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㉔에서는 계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절세佳人(絶世佳人)’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㉔은 평국이 원수로서 위엄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므로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뜻뜻함을 의미하는 ‘위풍당당(威風堂堂)’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㉔은 보국이 평국의 소리에 겁을 먹고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으로,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전전긍긍(戰戰兢兢)’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전 완성하기 3

본문 104~106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①

【항세 결승 -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항세의 판결 이야기를 통해 조선 시대의 부패한 관리들에 대해 풍자한 우화 소설이다. 사악한 친척으로 인해 고통받던 부자가 송사를 벌였지만 뇌물을 받은 서울 법관이 친척의 손을 들어 주자, 항세의 이야기를 통해 서울 법관과 같은 부패한 관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부자가 지어낸 이야기인 우화에서 부당한 송사의 피해자인 ‘피꼬리’와 ‘빠꾸기’는 ‘부자’에,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하는 ‘따오기’는 뇌물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부자의 ‘친척’에, 부패한 권력자인 ‘항세’는 ‘서울 법관’에 각각 대응된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고전 소설에서 흔하지 않은 것으로,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풍자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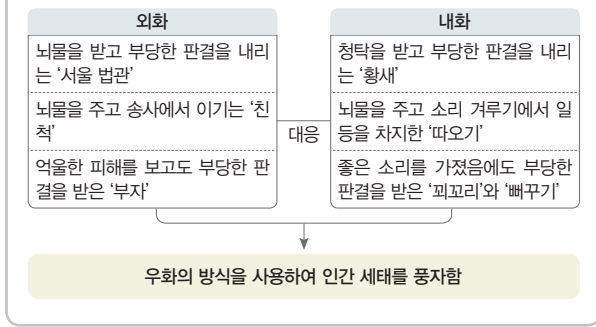
주제 잘못된 송사가 이루어지는 부패한 현실에 대한 풍자

특징 외부 이야기(인간 세태) 속에 내부 이야기(우화)가 삽입된 액자식 구성임

전체 줄거리

줄거리	[외화] 덕망 높은 부자에게 패악 무도한 친척이 찾아와 재산의 반을 나누어 달라며 횡포를 부림
	[외화] 친척의 악행을 참다못한 부자가 서울 법관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판결을 요청함
	[외화] 친척은 미리 서울 법관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냄
	[내화] 부자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항세 이야기를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줌
	[외화]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부자는 물러나옴

작품 한눈에 보기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서술자의 서술보다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 즉 '황새, 따오기, 피꼬리, 빠꾸기'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 중심의 서술 방식은 장면을 극적(劇的)으로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황새의 송사 이야기에서는 따오기는 황새에게 뇌물을 주며 거짓된 판결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황새가 받아들여 부정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흐름상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② 이 글의 끝부분을 보면, 황새의 송사 이야기는 한 인물이 겪는 현재 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 ④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나 태도에 동조하는 것으로 고전 소설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서술상 특징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이 글을 통해 창작 당시 물욕으로 인한 관원들의 부패가 만연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상세한 배경 서술을 통해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황새는 따오기의 요청을 즉각 수락하기보다는 판결을 조작할 수 있음을 은근히 언급하며 청탁을 받아들이고 있다. 황새가 이미 따오기에게 뇌물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A]에서는 황새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따오기는 황새에게 '송사에 아래 하(下) 자를 뿔 상(上) 자로 도로 집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따오기는 '소인의 소리 세 놈 중 참혹하여 아주 꺾짜치오니'라고 하며 자신의 소리가 피꼬리나 빠꾸기보다 못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 ③ 따오기와 피꼬리, 빠꾸기는 황새가 '명철 처분하시므로 명일에 댁에 모여 송사하려' 한다고 밝히며 황새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
- ④ 황새는 따오기의 요청을 듣고 도시 상놈이란 것이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안다며 나무라고 있다. 더불어 청을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임장이 난처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며 청을 들어주는 일이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이 글은 이야기 I에서 억울한 판결을 당한 부자가 이야기 II의 새들의 송사 이야기를 통해 관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기>와 같이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야기 I과 이야기 II는 내용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므로 서로의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끝부분을 보면 서울 법관은 뇌물을 받고 부자에게 부

당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법관과 황새는 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송사를 이끄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야기 II는 부자가 서울 법관에게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이를 풍자하기 위해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부자의 이야기에 형조 관원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한다고 했으므로, 이야기 II가 형조 관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야기 I과 이야기 II는 송사에서 판결을 내리는 인물이 뇌물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송사 처리 과정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관리들이 많던 당시의 인간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⑤ 이야기 I에서 뇌물을 쓴 친척이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야기 II에서 따오기는 황새에게 청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알아두기 소설에서 개연성의 의미

개연성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소설 속 사건이 마치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꾸민다는 의미이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에서 송사는 옳고 그름을 가려 따지지 않고 이리저리 꾸며 대기에 있다고 하였다. 송사가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의 낫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다.
- ③ '남굴북지(南橘北枳)'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로 인한 괴로움이 큼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 직접 겪는 것이 더 잘 알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완성하기 4

본문 107~109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⑤

[월영낭자전 - 작가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일부다처제라는 사회 제도 속에서 한 가정 내의 여인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쟁충(爭寵)형 가정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이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설정 아래 지상에 서의 이합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전반부는 여주인공이 혼인하기까지 많은 장애를 겪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후반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부인들 간의 갈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선인과 악인의 전형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선인과 악인의 대립에서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정 씨와 호 씨의 갈등은 일부다처제하에서 한 남편을 두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벌을 받는 정 씨는 편협한 질투심에 눈이 먼 덕이 부족한 인물로, 승리를 하게 되는 호 씨는 남을 탓하지 않는 덕을 갖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주제 가족 내의 갈등과 극복

특징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함

전체 줄거리

최현은 아들 희성과 호월영을 정혼시키려 하나, 간신의 모해로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월영은 피신하여 경여사 부인의 양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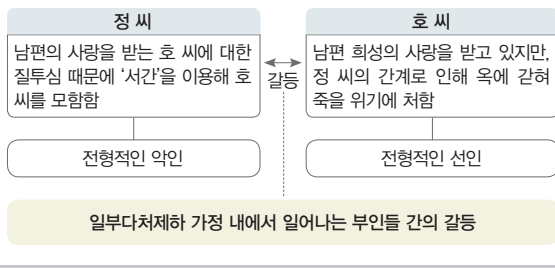
월영이 죽은 줄 알고 민 씨와 결혼한 희성은 우연히 경여사 집에 묵게 되고 월영과 재회하여 월영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함

희성은 임금의 장인인 정한의 압력에 의해 정 씨와 결혼하는데, 월영을 시기한 정 씨의 계략으로 월영은 옥에 갇히게 됨

월영은 옥중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고, 희성은 발해를 순행하고 오다가 꿈 속에서 호 부인과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길을 재촉함

정한이 월영을 처형하려 할 때 천상에서 선관들이 내려와 처형이 중단되고, 계략을 들킨 정 씨는 자결하며 나머지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냄

작품 한눈에 보기



01 사건의 전개 양상

호 씨는 남편의 근력을 생각하여 탄식하다가 홀연 몸이 곤하여 줄게 되고, 부모가 호 씨의 손을 잡고 우는 흥한 꿈을 꾸게 된다. 이에 불길한 기운을 떨쳐 내고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 씨가 호 씨가 없는 틈을 타 상서 부인과 호 씨의 침소에서 서간을 보고는 있지만, 정 씨가 호 씨를 꺾어서 후원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호 씨는 후원에 있었으므로 정 씨와 상서 부인이 정 씨가 조작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③ 정 씨와 상서 부인은 호 씨가 후원에 나가 침소에 없을 때 호 씨의 침소에서 정 씨가 꾸민 편지를 뜯어보고 있다.

④ 호 씨를 법으로 처치하리라는 상서에게, 상서 부인은 호 씨를 우선 옥에 가둬 두고 나중에 자객이 오면 자객을 잡은 후에 국법으로 다스리자고 말하고 있다.

⑤ 호 씨는 옥중에서 자신을 찾아 온 민 씨에게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이 정 씨의 간계인 것 같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에서 호 씨는 '이 몸이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첩의 죄악이 지중하와 이 같은 누명을 싣고 죽사오니~'라고 하며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의 죄가 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호 씨는 정 씨의 계략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을 탓하거나 억울함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호 씨는 '이 같은 누명을 싣고 죽사오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호 씨는 민 씨가 자신을 찾아와 위로한 것에 '은혜는 백골난망이로소이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③ 호 씨는 민 씨에게 유자(어린 자식)를 거두어 자신의 고혼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⑤ 호 씨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최희성의 은덕을 만분지일도 감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갈등은 악인인 정 씨와 선인인 호 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민 씨는 호 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도움을 주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 부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한 예로는 최희성의 아이를 임신한 호 씨가 옥에 갇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가정 소설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부각하기 위해 선인의 고행담을 곳곳에 삽입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호 씨는 선인의 전형적 인물이므로, 호 씨가 누명에 의해 옥에 갇히는 것은 선인이 악인에 의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 고행담으로 볼 수 있다.

② 정 씨는 최희성이 호 씨를 아끼는 것을 시기하여 악행을 저지른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정 씨의 악행은 남편 최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계략을 짜서 상대를 모함하는 정 씨는 악인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이와 달리 호 씨는 고난이 닥쳐도 남을 탓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여인들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호 씨가 선인의 전형적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보기>에 따르면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처첩(처처) 간의 갈등은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하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호 씨와 정 씨의 갈등으로 호 씨가 모함을 받는 구성은 그 당시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가정 소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정 소설이라고 한다. 고전 소설에서는 처처 혹은 처첩 간의 갈등이나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 간 갈등을 다룬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주제로 하는데, 대체로 악인(惡人)은 음해와 악행이 탄로 나서 징벌을 받아 죽게 되거나 참회하여 선인(善人)이 되고, 선인은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

04 소재의 의미와 기능

'서간'은 정 씨가 거짓으로 꾸며 낸 것으로 호 씨를 모함하는 수단 이 된다. 이를 계기로 상서와 상서 부인은 호 씨에 대해 오해하고 호 씨를 부정한 인물이라고 여기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정 씨에 의해 작성된 거짓 '서간'은 호 씨가 외간 남자와 내통하여 최씨 일가를 몰살하고 함께 도피를 꿈꾸는 내용만 있을 뿐, 호 씨의 과거 행적을 요약하여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정 씨가 호 씨를 시기하는 이유는 호 씨가 남편 최희성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간'에 정 씨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민 씨가 옥에 갇힌 호 씨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서간' 때문에 호 씨를 이해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이 정 씨의 간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④ '서간'은 정 씨가 최희성으로부터 호 씨를 떼어 내기 위한 계략으로 작성한 것으로, 외간 남자와 호 씨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01 ② 02 ② 03 ⑤ 04 ①

[옹고집전 -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원래 판소리 열두 마당 중 하나로 불리었다고는 하나, 현재 판소리는 남아 있지 않다. 악행을 일삼는 자를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효를 저버리고 불도를 모욕하는 악행을 일삼은 실용을 벌하기 위해 도승이 벼짚으로 허옹을 만들어 실용을 벌하는 장면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전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과 불교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옹고집이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 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등장하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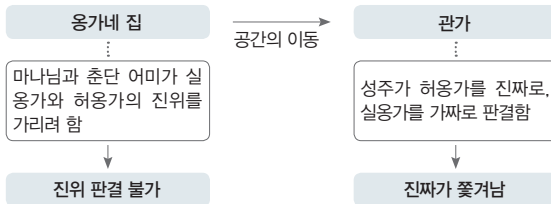
주제 악행을 일삼던 옹고집의 인과응보와 개과천선

특징 • 인물의 해학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
• 판소리 문체의 특징인 현재 진행형의 장면 제시가 나타남

전체 줄거리

옹고집은 성질이 과격하고 고집이 센 데다 인색하여, 팔순의 병든 노모를 냉방에 방치하고 돌보지 않음
옹고집의 악행을 혼내 주기 위해 도승이 학대사를 보내지만, 오히려 학대사는 옹고집에게 매만 맞고 돌아옴
도승이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보내자, 허옹가와 실옹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다투다 관가에 소송을 하러 감
허옹가가 집안 내력과 세간을 더 잘 알아 진짜로 판결되고, 실옹가는 매를 맞고 쫓겨나 결인이 되어 고생함
실옹가가 자살하려고 하자 도승이 나타나 훈계하고 부적을 줌. 실옹가는 집으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

작품 한눈에 보기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성주는 실옹가와 허옹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지 않으며, 실옹가의 죄목과 그에 대한 벌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하나의 장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지만 제시된 장면에는 나오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마나님은 도덕이 높은 공자도 그의 얼굴과 비슷했던 노나라의 포악한 정치가인 양호로 인해 변을 치렀던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 역시 높은 절개를 가졌지만 곤욕을 치르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③ 실옹가는 자신이 가짜로 판명되어 쫓겨나서야 노모, 부인, 자식을 차례로 열거하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있다.
- ④ 허옹가는 남산 위에 봉화 둘 때 인경을 치는 일이나 사대문을 열 때 순라군이 나타나 단속하는 것이 다 격에 맞는 일이듯, 자신 역시 도포에 불뿔 난 자국이 있으므로 진짜 옹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⑤ 춘단 어머니는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듯, 진짜 옹가와 가짜 옹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02 사건의 전개 양상

(가)는 ‘옹가네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나)는 ‘관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가)에서 가족들이 진짜 옹가를 밝히는 데 실패하여 (나)에서 소송을 통해 밝히려는 것으로, 둘 다 현실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옹고집이 ‘꿈이거든 깨이거라’고 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누가 진짜 옹가냐를 밝혀야 하는데, 관가에서는 허옹가를 진짜라고 판결했으므로 이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마나님이 절개 높은 자신이 이런 곤란을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고, (나)에서는 실옹가가 진짜인 자신이 쫓겨난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탄식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마나님과 춘단 어머니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서 관가로 가서 판결을 받고 있다.
- ⑤ (가)에서 실용은 자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뒤통나게 대응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가짜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궁색하게 쫓겨나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에 따라 옹고집을 평가했을 때, 옹고집은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늙은 모친을 박대하고, 중을 모욕하는 등 윤리 도덕을 저버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옹이 벌을 받게 되는 결과는 이러한 악행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만으로 송사의 과정에서 성주가 실용을 가짜 옹고집으로 판결한 것을 성주가 개인적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허옹이 진짜로 판가를 나게 된 것은 장면 이외의 부분에서 허옹이 실용보다 집안의 가계와 세간을 더 정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 ② 허옹이 성주를 대접하려는 것은 이미 판결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권력자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단순한 감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성주가 실용을 귀양을 보내지 않고 곤장만 쳐서 심문하는 이유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 ④ 군노 사령이 실용을 내쫓는 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옹이 가짜로 판명되어 진짜의 세간을 노리는 나쁜 놈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마나님은 옹가가 받은 죄가 ‘하늘이 내리신 죄’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팔십 먹은 노모를 학대하고 중들을 묶어 놓고 모욕을 주는 등 악행을 일삼은 옹가가 당연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값음을 받게 됨을 이르거나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름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患難)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禍)가 되고, 어느 것이 복(福)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거나 인생의 길흉화복

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을 이르거나 허술한 계획으로 큰 일을 도모함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완성하기 b

본문 113~115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⑤

[마장전 _ 박지원]

해제 이 작품은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 송옥, 장덕홍, 조탑타 세 걸인의 대화를 통해 군자로 행세하던 당시의 문인들과 학자들의 벼 사귀는 도리를 풍자한 한문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은 비록 저자에서 돌아다니는 하층민이지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참된 우정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위선적으로 벼를 사귀는 양반들과 대조를 이루어 당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작자는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 당시 지배 계층인 양반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며, 양반들의 벼 사귀는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교우 관계를 계몽하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대의 성리학적 관념에 반기를 들고 봉건 사회를 비판하는 실학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군자의 벼 사귀에 대한 비판

특징 풍자와 비판의 방법으로 주제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말 거간꾼의 술수와 약의 양을 속인 첩 이야기를 들어 정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는 참다운 벼가 아니라고 함

걸인 송옥, 조탑타, 장덕홍은 광통고 위에서 벼 사귀는 방법을 논하기 시작하고, 덕홍이 벼 사귀는 도리에 대해 말함

송옥은 덕홍에게 벼 사귀는 묘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며 점잖은 사람들이 벼를 사귀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함

덕홍은 총의로 벼를 사귀지 않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셋은 갖과 옷을 찢고 노래를 부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님

곧게 선생은 이 일을 듣고는 '우정론'이라는 글을 지어, 틈을 타서 벼를 사귀는 일과 아첨의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함

작품 한눈에 보기

송옥	덕홍	탑타
군자가 벼를 사귀 때 세력, 명예, 잇속을 따르는 점을 비판함	참된 벼 사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총의로 벼를 사귀지 않는 군자를 비판함	송옥과 덕홍의 말을 듣고 자신은 점잖은 군자와는 벼로 사귀지 않겠다고 말함

위선적이고 작위적인 군자의 사귀를 비판함

작가 알기

박지원(1737~1805) : 조선 후기의 문장가이자 실학자. 박제가, 홍대용 등과 함께 북학파의 영수로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고, 문학을 통해 양반 계층의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배격하는 한편, 독창적인 사실적 문체와 비판적인 문학을 확립했다. 저서에는 『열하일기』, 『연암집』 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군자의 벼를 사귀는 태도'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송옥, 덕홍, 탑타라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서술하는 내적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평가하여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세 인물의 의견이 중심이 될 뿐 과거의 사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벼를 사귀는 세태에 대한 인물들의 비판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벼의 사귀에 대한 등장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양반들의 벼 사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마무리하고 있을 뿐, 복선 구실을 하는 특정 단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탑타는 송옥의 말을 듣고 그 뜻이 깊어서 수수께끼와 같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며, 덕홍의 부연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덕홍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를 통해 덕홍의 설명을 더 듣게 된다. 그러므로 탑타는 다른 인물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말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탑타는 다른 사람의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묻거나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묻고 있을 뿐, 송옥이나 덕홍의 말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③ 송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탑타에게 부연 설명을 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는 사람은 덕홍이다.

④ 탑타는 송옥의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덕홍에게 질문을 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인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송옥이며, 덕홍은 송옥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있지만 탑타는 한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에서 세 사람이 갖을 부수고 옷을 찢고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거리에서 노래하는 것은, 양반과 같이 위선적으로 벼를 사귀지 않겠다는 이들의 결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해 세 사람이 추구하는 교우 관계가 무엇인지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말 거간꾼과 같은 행동으로 보거나 양반들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팔이 바깥으로 굽하지 않는 것은 군자들이 벼를 사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술잔을 잡는 것은 군자들이 벼를 사귀는 목적으로 삼는 것, 즉 세력, 명예,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벼를 사귀는 세태를 빗댄 것이다.

② ㉠에서 온 세상이 물러드는 '세력, 명예, 잇속'은 양반들이 실제 벼를 사귀는 때 속으로 얻고자 바라는 것들로,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③ ㉠에서 송옥은 점잖은 사람이 벼를 사귀는 다섯 가지 방법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톡 터진 큰 길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이는 점잖은 사람이 벼를 사귀는 다섯 가지 방법이 정말 큰 길이라고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위적이고 위선적인 방법이라고 풍자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④ 탑타는 ㉠의 말을 통해 친구가 없더라도 점잖은 사람과는 사귀지 못하겠다고 하며, 겉과 속이 다른 양반들의 사교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이 글에서 점잖은 사람들은 벼를 사갈 때 인정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력, 명예, 잇속을 따지는 세속적인 사고 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충고하기에는 인정에 의한 사귀기가 있어야만 참된 사귀기라는 의미의 ⑤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큰 이익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제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색하나 억지로 빼앗아 가는 데는 못 이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서로를 잘 알고 정분이 두터워진 사람이 좋다는 말이다.

알아두기 『방경각외전(放境閣外傳)』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이 젊었을 때 쓴 한문 소설들의 모음집이다. 거지, 몰락한 양반, 농부 등의 하층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지배층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거나 하층민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총 9편의 한문 소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과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은 박지원이 스스로 없애 버려 전해지지 않으며 「마장전(馬駟傳)」, 「양반전(兩班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김신선전(金神仙傳)」, 「우상전(虞裳傳)」의 7편만 남아 있다.

V 극 · 수필

기출로 3년 익히기 1

본문 120~12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불모지 _ 차범석]

해제 이 희곡은 1950년대 서울 종로를 배경으로 하여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을 두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자식들과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 사이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전통을 고수하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지만 모순된 현실로 인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신세대의 갈등은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이 작품은 이러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비극적 현실을 통해 전후 우리 사회의 황폐함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특징

- 대립되는 무대 공간 및 인물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과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줌

작가 알기

차범석(1924~2006) : 한국의 현대극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극작가로, 사회성이 강한 작품을 주로 썼다. 전쟁 직후의 사회적 혼란상과 개인의 좌절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리얼리즘의 작품을 전통에 입각하여 심화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6·25 전쟁의 상처, 문명화에 따른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 정치의 허위성과 그 비리를 주요 제재로 다루었다. 주요 작품으로 「산불」, 「성난 기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이 있다.

01 서술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와 같은 경수의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이 글은 서울 중심지의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최 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리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라고 역정을 내는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말장난과 같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는 〈중략〉 전후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 ③ 경재가 제복을 차려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등장에 대한 지시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㉞은 어머니와 경운이 ‘예? 전세라구요?’라며 되묻는 경수의 말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다. 뒤에 나오

01 ④ 02 ③ 03 ④ 04 ⑤

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와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어머니와 경운이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최 노인은 집 주변에 들어선 건물들로 인해 작물들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 못마땅할 뿐 아니라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 대!’라고 하며 환경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경재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최 노인을 향해 웅변 연사의 흉내를 내며 말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 ③ 최 노인은 경수의 버릇없는 말에 흥정을 깨고 나간 복덕방의 마음을 돌리고자 복덕방을 ‘침지’보다 존대하는 느낌인 ‘선생’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 ⑤ 어머니는 정성스레 가꾼 화초밭을 최 노인이 갑자기 짓밟기 시작하자 이를 말리려고 황급히 맨발로 화초밭을 향해 뛰어내린 것이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④는 어머니가 최 노인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겨 질문한 것이 아니라 최 노인의 계획을 처음 들은 상황에서 그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한 것이다. 그리고 ④로 인해 최 노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경수가 복덕방에게 버릇없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최 노인의 계획은 이미 ④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 오답 풀이** ① ③는 변화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최 노인의 말로, 경재는 그런 아버지에게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라고 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익살스럽게 말하고 있다.
- ② ⑥는 복덕방이 말한 집값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경수가 버릇없이 한 말로, 이에 화가 난 복덕방은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고 퇴장하게 된다.
- ③ ⑤는 집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최 노인의 말로, 이를 통해 경수는 자신이 최 노인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 ⑤ ⑥는 다른 가족들처럼 경운 역시 최 노인이 집을 팔려는 줄 알았다는 말로, 이를 들은 최 노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04 배경 배경의 의미와 기능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탓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작물들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어 왔다. 최 노인의 마지막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화초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고 집을 전세 놓으려던 계획도 어그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마구 짓밟으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화초밭’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허망해하는 최 노인의 감정이 드러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는 경재의 말을 통해 그가 ‘화초밭’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② ‘화초밭’은 집의 일부로, 최 노인이 ‘화초밭’을 짓밟은 이유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풀이를 한 것이다.
- ③ ‘화초밭’을 짓밟은 최 노인과 이를 말리는 어머니가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④ 최 노인이 ‘화초밭’을 짓밟은 것은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도 일이 풀리지 않은 것에서 온 분노나 절망 때문이다.

가 [독 짓는 늙은이 _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해제 이 작품은 황순원의 소설 「독 짓는 늙은이」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일생을 도공으로 살아온 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 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일평생을 독 짓는 일에 바쳐 온 송 영감의 몸이 쇠약해진 상황과 그가 만든 독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밀려올 비극을 암시하고 있다. 원작 소설과 달리 행손이 영감과 나그네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원작이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어 가는 세대 변화에 대항하는 송 영감의 예술가적 집념과 좌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시나리오는 송 영감의 태도뿐만 아니라 혈육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간 본연의 애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주제 예술에 대한 집착과 좌절, 인간 본연의 애정

- 특징** •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의 시나리오임
- 고집스럽고 타협할 줄 모르는 장인의 집념을 잘 드러내고 있음

나 [독 짓는 늙은이 _ 황순원]

해제 이 소설은 일생을 독 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갈등은 함께 도망간 아내와 조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겨 온 독 짓기가 노쇠한 체력과 혼비백산하는 정신으로 인해 실패하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과 내적 갈등이 깔려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의 몰락과 전통적인 것의 쇠퇴라는 문제 제기를 넘어 문명 이전의 순수한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 주지 못하는 한 자연인의 비극적 종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독을 대신해서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송 영감을 통해 위대한 장인상을 구현하고 있다.

주제 사라져 가는 전통에 대한 한 인물의 집착과 좌절

- 특징** •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직접 제시함
-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분석적으로 제시함

작가 알기

황순원(1915~2000) : 1931년 「동광」에 시 「나의 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1940년 단편집 「늙은이」를 출간하면서부터 소설에만 전념하였다. 주로 함축성이 강한 간결한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을 많이 썼다. 대표 작품으로는 「학」, 「소나기」, 「카인의 후예」 등이 있다.

01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에서 송 영감이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독을 박살 내다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지쳤기 때문이므로 여기에는 예술가의 집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송 영감이 ‘사십 년래 없이 솟대를 다 먹는 듯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 영감이 병으로 쇠약해졌다는 것이므로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송 영감이 '아내! 이건 독이 아내!'라고 말하면서 독을 박살 내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독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에서 송 영감이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도 독을 짓는 이유는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인 동시에 예술가적 집념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가)에서 송 영감이 '흙덩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구운 독이 그저 흙덩이에 불과할 만큼 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송 영감이 계속해서 독을 박살 내는 동기가 된다. (나)에서 '흙 몇 덩이'는 송 영감이 독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를 뜻한다.

③ (가)에서 석현은 독을 깨부수는 송 영감을 말리지만, 송 영감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을 박살 내자 아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이처럼 독을 박살 내는 송 영감의 행동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석현과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나)에서 송 영감이 독을 짓는 과정에서 '조수의 환영'을 보는 것은 함께 도망친 조수와 아내에 대한 분노가 독 짓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⑤ (가)에서 송 영감이 독을 깨부수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자신의 미적 가치를 충족할 만한 독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에서 송 영감이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인으로서의 열의가 있기 때문이다.

02 인물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송 영감은 자신이 만든 독이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비통해하고, 독들을 모두 박살 낸다. 반면에 석현은 성한 것도 있다면서 독을 부수는 송 영감을 말린다. 이를 통해 독의 완성도에 대한 두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송 영감의 질문에 대한 옥수의 대답일 뿐, 옥수가 송 영감보다 독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은 독을 마구 부수는 송 영감의 행동을 보고 놀라서 똥손이가 한 말일 뿐, 똥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이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은 송 영감이 도망친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깊어 가는 병 때문에 힘에 부쳐 쓰러진 것을 나타낼 뿐, 가마에 대한 송 영감의 불만이 담긴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은 아들이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03 서술 서술상의 특징

[A]에서는 '확 분노가 치밀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자가 송 영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아들이 남에게 음식을 얻어 온 상황에 대한 송 영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는 송 영감이 깨어나 아들과 밥을 먹으려고 하지만 좀처럼 먹지 못하는 상황이 짧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A]에서 서술자가 인물 간의 대화에 개입을 하거나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영두나못집 할머니가 아들의 발언을 통해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⑤ [A]에는 송 영감과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송 영감이 아들에게 화를 내서 아이가 우는 것만으로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알아 두기 서술상의 특징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데,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나 인물 간의 대화에 따른 장면 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송 영감'이라는 한 인물의 성격과 행동에 초점을 둔 설명적 진술과 서사적 묘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 인물의 내적 갈등과 심리 변화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데 적합한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04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박살 나는 독들 때문에 느끼는 옥수의 아픔을 나타낸 것으로, 비유를 활용한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별떡 일어나'는 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아픈 몸에도 별떡 일어난 송 영감의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는 송 영감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송 영감의 시선이 뱀자기로 향하는 것은 완성도 있는 독을 만들고 싶다는 송 영감의 소망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뱀자기의 형체가 햇빛을 받아 더욱 고답'하다고 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송 영감의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는 것이다.

② (가)에서는 똥손이가 송 영감에 의해서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모습을 통해 독을 박살 내려는 송 영감과 이를 말리려는 똥손이의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독이 깨지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옥수가 느끼는 내적 고통과 독을 깨며 오열하는 송 영감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독을 (나)에서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표현한 것을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기출로 개념 익히기 3

본문 128~130쪽

01 ③ 02 ③ 03 ⑤

가 [향현(香峴)] _ 박두진

해제 이 시는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1930년대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화자를 둘러싼 암담한 현실을 '산'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여 그 침묵이 깨어질 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중첩된 산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정의의 불꽃 즉 '화염'을 기다리며, 앞으로 찾아올 화합과 평화의 날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

특징 • 반복과 영탄을 통해 험난 울동감을 자아냄
•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염원을 드러냄

구성 1연 : 암담한 현실 인식

2연 : 대립과 갈등을 내포한 현실

3연 :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

4연 : 현실 극복에 대한 기원

5연 : 화합과 평화에 대한 갈망

작가 알기

박두진(1916~1998) : 1939년 『문장』에 「향현」, 「묘지송」 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초기에는 역사나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작품을 썼고, 후기에는 기독교적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어서 너는 오너라」, 「청산도」, 「해」, 「꽃구름 속에」 등이 있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_ 강은교]

해제 이 시는 ‘물’로 상징되는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물’이 되어 ‘바다’에 닿고자 하나, 현실은 파괴이자 죽음을 상징하는 ‘불’로 만나려 한다. 이러한 황폐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 화자는 ‘불’로 인한 고통과 번뇌를 모두 넘어서 다음에 ‘흐르는 물’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물’과 ‘불’의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고독하고 메마른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순수한 삶을 희구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의 극복과 원시적 생명력의 회복

특징 • 가정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
• 물과 불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구성 1연 :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소망
2연 : 물이 되어 바다에 닿고 싶은 심정
3연 : 불로 만나려는 현재의 상황
4연 :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 싶은 소망

작가 알기

강은교(1945~) : 1968년 『사상계』 신인 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허무를 주제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를 창작하였는데, 점차 공동체적 삶과 사회 현실 문제로 관심을 넓혀 갔다. 주요 시집으로는 「허무집(虛無集)」(1992), 「우리가 물이 되어」(1986), 「바람 노래」(1987), 「벽 속의 편지」(1992) 등이 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일어서라 풀아」, 「저물 무렵」, 「안개 속에는」, 「숲」 등이 있다.

다 [눈 _ 박이문]

해제 이 작품은 눈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철학적 명상이 담긴 수필로, 글쓴이는 눈 덮인 세계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읽어 내어 그것을 시적이고 철학적인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눈이라는 사물을 외적인 풍경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순결한 세계를 향한 구도적 자세와 겹쳐서 사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쓴이는 눈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속성이 지닌 미덕을 예찬하고 있는데, 따뜻하고 명상적인 존재인 눈을 꼼꼼히 음미하면서 그 안에 담긴 상장을 인생과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다.

주제 눈을 통한 철학적 사색

특징 •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을 성찰함
• 병렬식 구성으로 ‘눈’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을 예찬함

작가 알기

박이문(1931~2017) : 본명은 박인희이며, 1955년 『사상계』에 시 「회화를 잃은 세대」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철학과 문학, 예술은 절대적인 구분이 없다는 생각으로 철학과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작품 활동을 펼쳤다. 주요 평론집으로는 「문학 속의 철학」(1975), 「시와 과학」(1975), 「파리의 작가들」(1977) 등이 있다.

01 감상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화자는 ‘너희’, ‘너희들’로 지칭되는 ‘산’에게 ‘화염’을 기다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그대’에게 흐르는 물로 만나자고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구 표현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적인 정서도 (가)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는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불’이 지나고 난 뒤 ‘물’로 만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산’, ‘기다려도 좋으랴’를 반복하여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암울한 현실과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에서는 ‘눈’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비유적 표현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에서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수필 글쓰이의 관점 및 태도

3문단에서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밤’의 ‘고독’이 삭막함이나 허전함을 주기보다는 따뜻한 내용을 갖게 한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글쓴이는 어두운 밤중에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4문단에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있으면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된다고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철학자’로 표현하고 있을 뿐,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4문단에서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책상 앞에 앉은 이유가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라’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는 1문단에서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을 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서술 서술상의 특징

⑤의 ‘포근하다’는 ‘보드랍고 따뜻하다.’라는 감각과 ‘보드랍고 따뜻하여 편안한 느낌이 있다.’라는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㉔)로, ‘자갈밭은 포근하다.’는 ‘포근하다’를 사용하여 ‘자갈밭’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는 ‘자갈밭’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 즉 포근함을 느끼게 한 어머니의 모습(㉕)과 관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특정 사물을 통해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④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 ‘차갑다’를 사용하여 ‘지식’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그와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은 찾아볼 수 없다.

01 ④ 02 ③ 03 ② 04 ⑤

가 [오륜가 _ 주세붕]

해제 이 시가는 작자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연시조로, 오륜(五倫)의 내용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노래하고 있다. 백성의 교화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국문으로 풀어 쓴 이 작품은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훈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시(序詩)를 포함하여 모두 6수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오륜의 다섯 덕목 중 봉우유신(朋友有信) 대신 형제우애(兄弟友愛)를 추가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주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오륜(五倫)의 교훈

특징 • 오륜(五倫)의 유교 사상을 노래함
• 설교조의 어조를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설적으로 표현함

구성 제1수 :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서시)

제2수 :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도리(부자유친)

제3수 :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군신유의)

제4수 :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부부유별)

제5수 :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형제우애)

제6수 :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장유유서)

작가 알기

주세붕(1495~1554) :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성리학 이념의 보급을 통한 교화와 향촌 사림의 배양을 위해 최초로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엄연곡」, 「태평곡」 등이 있다.

나 [차마설 _ 이곡]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한 고전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빌린 말을 탈 때의 기분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 후, 이러한 외견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자기 소유일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빌린 것인데도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특징 • '사실 - 의견'의 2단 구성 방식을 취함
• 유추의 방법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일반화함

작가 알기

이곡(1298~1351) : 고려 후기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호는 가정(稼亭)으로, 충숙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내다가 원나라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하여 그곳의 문우들과 교류하였다. 대표적인 문집으로는 「가정집(稼亭集)」이 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차마설」, 「죽부인전(竹夫人傳)」 등이 있다.

01 **감상**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오륜(五倫)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여 올바른 삶을 권고하고, 이를 어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나)에서는 모든 소유물은 남에게서 빌린 것인데도 사람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인 양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러한 태도를 반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어와', (나)에서는 '아'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의 '아버님 날 나쁘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와 (나)의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에 대구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상반된 세계관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와 (나)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삶의 자세를 유추할 수는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 이 상황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역설적 표현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02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글쓴이는 남의 말을 빌려 탔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여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남에게서 빌린 것이므로 권세와 힘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제2수>에서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인 유교의 오륜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기 위함은 아니다.

② (가)는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여 이를 의식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견에 따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제3수>에서는 엄격한 상하 질서를 갖추고 있는 벌과 개미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나)에서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3 **감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제4수>에서는 지어미가 지아비에게 반상을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 지아비를 화자로 내세우지도,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에서는 엄격한 상하 질서를 갖추고 있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충성을 유추하고 있다.

③ <제5수>의 '젓'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생육을 위해 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데, <제5수>에서는 형님과 아우가 이러한 어머니의 '젓'을 화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형제간에 지켜야 할 우애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개돼지'는 <제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유교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비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늙은이'를 '부모', '어른'을 '형'에 빗대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4 수필 글쓰이의 관점 및 태도

(나)에 인용된 ‘맹자’의 ‘이 말’은 빌린 것을 반환하지 않고서 소유했다고 여긴다는 의미로, 글쓰이는 이러한 공자의 말에 느낀 바가 있어서 빌린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나’는 노동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조심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로 미루어 볼 때 ‘나’가 ‘준마’를 소유한다면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돌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미혹된 일이라고 하고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나’는 빌린 권력을 돌려주게 되면, 임금도 독부가 된다고 하고 있다. 즉, 독부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긴 후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실전 완성하기 1

본문 134~136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③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 오영진]

해제 이 작품은 친일 행각으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거짓 자살극을 꾸미는 이중생이라는 인물이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광복 이후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친일 세력이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중생을 ‘살아 있는’이라고 강조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관 속에 누워 있는 이중생을 조롱하고, 부정적 인물인 이중생에게 ‘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여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중생의 모습을 통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등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친일 잔재 세력이 판치는 병든 사회상의 고발과 풍자

특징 극적 긴박감과 희극적 분위기를 공존시킴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줌

전체 줄거리

이중생은 외아들 하식이를 학병으로 보내는 등 친일 행각으로 재물을 모음. 광복 이후 무허가 산림 회사를 차린 데다가 권력에 아부하는 등 부를 유지하려 온갖 술책을 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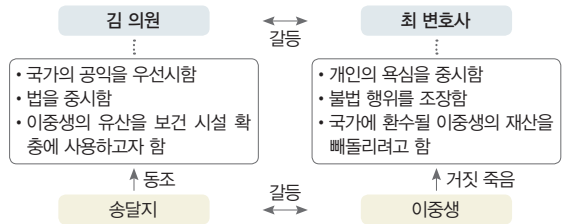
이중생이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연행되자, 최 변호사는 이중생에게 전 재산을 사위인 송달지에게 상속하고 거짓으로 죽었다가 나중에 송달지로 행세하라고 제안함

수필 지문

거짓 장례식에 국회 특위의 김 의원이 나타나 송달지에게 무료 병원을 설립하는 데 재산을 헌납할 것을 권함. 김 의원이 돌아가자 이중생은 이를 허락한 사위를 크게 꾸짖음

학병으로 골려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들 하식이가 돌아와 아버지를 비판함. 진퇴양난에 빠진 이중생은 일을 도와주기 위해 와 있던 아낙에게 귀신 취급을 받고 결국 자살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오영진(1916~1974) :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이론가. 한국인의 해학과 풍자를 잘 표현한 뛰어난 희극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희극적 세계로서 현실의 어리석음이나 물욕을 비웃고 꾸짖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작품의 소재를 전통적인 민속과 고전 소설에서 가져 오기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맹진사댁 경사」, 「정직한 사기한」, 「허생전」 등이 있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글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김 의원과 최 변호사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중생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천박하고 비속한 말을 사용하여 송달지에게 일방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일 처리 그렇게 잘하니 끝을 맺어야지.’는 일 처리를 잘못한 송달지를 탓하는 말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두 팔을 휘두르고 두 발을 궁그며’라는 지시문에서 보듯 이중생은 과장된 몸짓을 통해 송달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이중생이 ‘살아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아야, 아니 살아 있는 이중생……’, 죽어 있는 이중생이라 하며 자신을 살아 있다고 해야 하는지 죽어 있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고악한 놈’, ‘배라먹을’ 등의 비속어를 통해 이중생의 천박한 인품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최 변호사는 ‘그렇게 됐지 아냐, 송 선생?’이라고 하며 송달지에게 자신의 주장에 동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송달지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동조를 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송달지가 최 변호사의 강요에 반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송달지를 이용하여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유서를 쓰고 죽은 척하고 있다.
 ② 송달지는 김 의원의 제안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산을 보전하려는 이중생의 계획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④ 최 변호사는 시종일관 김 의원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중생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⑤ 김 의원은 이중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호하게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중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사를 초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의 제목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을 ‘살아 있는’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을 하다가 오히려 무료 병원을 설립하는데 재산을 몽땅 쓸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사기, 배임, 횡령, 탈세의 죄가 밝혀져 살아 있다고 내세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목의 '살아 있는'은 진정으로 살아 있지 못한 이중생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④ '이중생(二重生)'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삶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를 통해 거짓 죽음과 진짜 자살로 두 번 죽는 사람,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는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각하'는 '대통령 각하'처럼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인데, 이를 부정적 인물인 이중생에게 사용함으로써 조롱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형상화 방식

극 중에서 이중생이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이중생 자신만 그 사실을 깜빡 잊은 채 무의식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송달지가 이중생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대사로, 사건을 긴박하게 만든다.

② ㉡은 최 변호사가 김 의원의 말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말로, 무의식적 행동에 의한 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최 변호사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말이다.

⑤ ㉣은 인물들의 등장과 퇴장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다.

알아두기 극적 아이러니

극 중 상황의 모순이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이 독자 또는 관객의 예상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질 때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서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비극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전체 줄거리

춘호는 아내 순이와 함께 금을 찾아 광산촌에 오지만 광산은 폐광되고, 꿈을 잃은 춘호는 순이를 일터로 보내고 자신은 도박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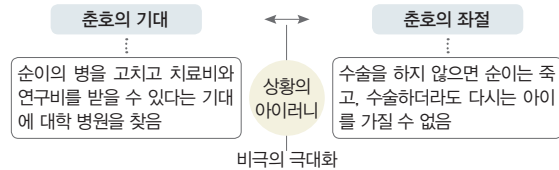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자 순이는 고리대금업자인 이 주사에게 몸을 팔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춘호는 그 돈으로 향심과 놀아남

이 주사의 폭압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이 주사의 집을 태우고, 이에 일본 순경들이 마을을 쫓대밭으로 만든 사이 향심이 사라짐

춘호는 아내도 버려둔 채 사라진 향심을 찾아 나서고, 사업을 하던 향심의 삼촌이 폐병 환자인 그녀의 남편이었음을 알게 됨

소속 지문 갈 곳이 없는 춘호는 아내를 찾아 돌아오지만 순이는 병들어 죽게 되고, 춘호는 아내의 유언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김유정(1908~1937) : 일제에 의해 감행된 식민지 농업 정책으로 인해 신분의 전락을 경험하고 있는 농민들의 실상을 반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1930년대의 뛰어난 사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농촌과 도시의 토속적인 인간상을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그려 내었다. 주요 작품으로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동백꽃' 등이 있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순이는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 수술 포기는 곧 순이의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순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수술비로 금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간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춘호를 말리는 순이가 '그 색신지가 아니여유'라고 말하는 것에서 평소 춘호가 순이를 폭력적으로 대해 왔음을 추리할 수 있다.

② 간호원은 환자를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직업상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의 준비 여부만 확인하면서 순이와 춘호에게 냉정하고 통명스럽게 대하고 있다.

③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느냐는 순이의 물음에 의사는 '당신이 지금 그럴 계세요? 당신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요.'라며 매정하게 대꾸하는 등 의사는 순이의 심리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

④ 춘호는 순이의 수술 진행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냉철하게 대처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판단력을 잃고 있다. 순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망연자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성을 잃은 채 간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순이의 죽음도 몰며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B]의 '길'은 순이가 죽으면서 춘호에게 유언을 남기는 곳이고, [C]의 '황톳길'은 이후 춘호가 걸어가는 길로 서로 다른 장소이다. [B]와 [C]에서는 순이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이농민 부부의 비참한 삶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실전 완성하기 2

본문 137~139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①

[땡별 _ 김유정 원작 / 이양일, 나한봉 각색]

해제 이 작품은 도시로 살길을 찾아 유랑해 온 이농민 부부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김유정의 동명 소설 「땡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춘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인물이며, 아내 순이는 남편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만큼 희생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들과 갈등을 겪는 의사와 간호원은 물질주의의 비정한 현실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순이의 유언대로 순이가 소중히 여기는 술을 메고 떠나는 춘호의 모습을 여운 있게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춘호의 의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이농민 부부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

특징 •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로 주제를 강조함
• 당대 민중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오답 풀이 ①, ② 죽어 가는 순이를 살리고 치료비와 연구비를 받으려는 기대로 대학 병원 '진찰실'을 찾았던 춘호 부부는 오히려 의사와 간호원에게 무안을 당하고, 돈 문제로 수술을 포기한 채 '길'로 나서게 된다.

④, ⑤ [A]에서는 주로 순이와 의사의 대화, 춘호와 간호원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B]에서는 순이와 춘호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된다. [C]에서는 대사 없이 춘호의 움직임만으로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03 형상화 방식

〈보기〉에서는 인물이 다른 인물, 혹은 상황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 갈등은 반응보다는 행동 때문에 고조된다고 하였다. 춘호와 간호원의 갈등은 춘호의 상황에 대한 간호원의 반응에서 시작되는데, 춘호나 순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사의 말에 춘호의 감정이 격앙되고 결국 간호원의 목살을 잡는 춘호의 행동으로 이어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보면, 반응은 상황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S# 112를 보면, 춘호는 순이의 병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 인물의 반응을 불러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보면,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안타고니스트(악역)'라고 한다고 하였다. S# 112를 보면, 의사와 간호원은 춘호의 딱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순이의 수술비로 인한 갈등 해결의 장애물이 되므로 안타고니스트(악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보면, 인물의 행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내적 동기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S# 112에서 춘호가 수술비도 없이 순이를 병원에 데려간 행동은 순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의한 인물의 내적 동기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보면,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인물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S# 112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순이의 수술비로 인한 갈등 해결의 장애물이 의사나 간호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극도의 가난이 원인이 되고 있다.

알아 두기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는 고대 그리스 극의 주연 배우를 지칭하던 말로, 현대에 와서는 희곡, 영화, 소설 등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을 말한다.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프로타고니스트와 반대 위치에 있는 적대자로, 프로타고니스트의 목적이나 꿈을 저지시키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04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의 '구리 반지'는 춘호에 대한 순이의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 '술' 역시 춘호가 새로운 삶을 살길 바라는 순이의 마음과 더불어 춘호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의 '구리 반지'와 ㉡의 '술'은 갈등 해소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소재이다. 순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춘호에게 잘 살아 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고, 춘호 역시 순이의 유언에 따르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④ 이 글은 순이가 죽고 춘호는 술을 메고 걸어가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궁에 빠졌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의 '술'은 햇빛을 받아 반짝 빛을 발한다는 것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희망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 '구리 반지'는 순이가 곧 죽을 것임을 나타내므로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실전 완성하기 3

본문 140~141쪽

01 ① 02 ② 03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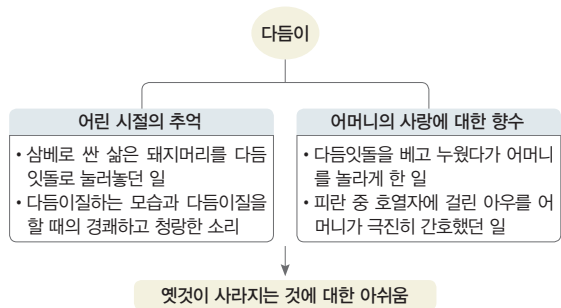
[다듬이 _ 정진권]

해제 이 글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재현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다듬잇돌과 다듬잇방망이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떠올리고 있다. 한편, 본래의 기능보다 부수적 기능으로 쓰이는 현재의 다듬잇돌을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고들고들', '뽕뽕하다'와 같이 서정적 느낌을 주는 고유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다듬이에 관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옛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특징 •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함
•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와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로 유년 시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그려 냄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정진권(1935~) : 수필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을 많이 썼다. 또한 한국인의 고유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수필집으로 『푸르른 나무들에 저 붉은 해를』, 『열쇠와 자물쇠』, 『한국인의 향수』 등이 있고, 주요 작품으로 「자장면」, 「비닐우산」 등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주로 고유어를 사용한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다듬이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삽화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 호열자에 걸린 아우를 안고 말없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어머니의 눈빛을 그 아우가 무사히 자라 신혼여행을 떠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떠올리고 있다.

④ 이 글의 글쓴이는 다듬잇돌과 다듬잇방망이를 보면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 밤에 다듬이질하는 모습과 그 소리에 취하였던 어린 시절 글쓴이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글쓴이가 다듬잇방망이로 국수를 미는 내용은 나타나, 이 국수는 어린 시절 글쓴이의 동생이 호열자에 걸려서 밥을 먹지 못하자 밥 대신 국수라도 먹이기 위해 어머니가 글쓴이에게 만들라고 시킨 것이다. 어머니가 국수를 한 가닥씩 아우의 입에 넣어 먹이는 장면이나 아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영상물로 제작하기에 적절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웃으면서 국수를 먹는 장면은 글의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영상물로 제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여름에도 차가운 다듬잇돌을 베고 누워 있다가 어머니에게 '다듬잇돌을 베고 누우면 입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장면이다.

③ 아내가 다듬잇돌과 다듬잇방망이를 사용하여 복어를 두들기는 것을 보며 어린 시절 삶은 돼지고기를 놀려놓는 용도로 쓰기도 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장면이다.

④ 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밤에 뒷간에 앉아 있으면 마을이 온통 청량한 다듬이 소리투성이였고, 뒷간에서 나오면 아랫방 문에 맞닿아있는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장면이다.

⑤ 어른이 된 글쓴이가 지금은 다듬잇돌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아내는 그것으로 복어나 두들길 뿐이라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장면이다.

03 소재의 의미와 기능

다듬이의 본래 기능은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부드럽게 하는 일인 다듬이질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글쓴이의 아내는 복어나 두들길 뿐이므로 다듬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ㄱ). 글쓴이는 다듬잇돌과 다듬잇방망이를 보며 어린 시절에 보고 들었던 다듬이질과 관련된 추억 및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다듬이는 글쓴이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듬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본 후 현재의 다듬이의 용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라져 가는 다듬이(전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현재의 삶을 반성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다듬이가 전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물에 빨아서 다리지도 않고 입는 옷으로 인해 다듬이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알아두기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정진권의 수필, 「자장면」

- 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장면을 소재로 하여 과거의 인심 많고 여유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이와 대조되는 현대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세상이 변해 감에 따라 중국집의 분위기도 바뀌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린 시절 고향의 중국집과 같이 소박한 인정이 넘치는 중국집이 남아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 주제 훈훈한 인정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 특징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며, 간결한 문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듯이 서술함

실전 완성하기 4

본문 142~143쪽

01 ③ 02 ② 0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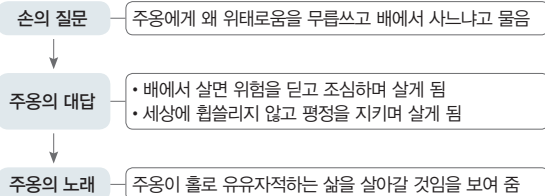
【주용설 - 권근】

해제 글쓴이가 자신의 대리인인 주용을 내세워 역설적 발상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평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태도가 필요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설(說) 형식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손의 물음에 대한 주용의 대답을 통해 참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용은 손에게 물 위에서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늘 경계하면서 사는 생활이 평탄한 땅을 디디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는 평안할 때 훗날의 근심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을 돌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조심스러운 마음가짐과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또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용의 노래를 삽입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제를 부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

특징 • 손과 주용의 문답으로 글이 전개됨
•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교훈을 전달함

작품 한눈에 보기



작가 알기

권근(1352~1409) :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 고려 공민왕이 즉자 정몽주, 정도전 등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원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와 화친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외교문서를 몰래 뜯어본 죄로 유배되기도 하고, 옥사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다가 석방되어 타향에서 머물던 중 조선 개국을 맞는다. 태조의 부름을 받고 새 왕조의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올린 그는 이후 왕명을 받아 경서의 구결을 저술하여 정리하고, 유생 교육에 힘썼다. 성리학자이면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왕명으로 하륜 등과 함께 「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양촌집」, 「경천견록(五經淺見錄)」 등이 있고, 작품에 「상대별곡」이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손의 질문에 대한 주용의 대답, 그리고 주용의 노래로 구성되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현실에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삶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드러나 있지만 현재를 과거의 모습과 대비시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손의 질문 - 주용의 대답 - 주용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손이 주용에게 왜 배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느냐고 묻자, 주용이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②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에서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거대한 물결과 한바탕 큰 바람이라는 자연에 빗대

어, 배 위에서의 삶보다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더 위험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주웅은 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뱃전을 두들기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말은 여운을 남기며 주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준다.

⑤ 이 글은 배 위에서의 삶과 육지에서의 삶을 대조하여 배 위에서의 삶, 즉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잡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2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보통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물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글의 주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일 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의 민 영감 역시 '나'가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밤에 못 자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여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웅은 손에게 항상 경계하고 평정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민 영감은 '나'에게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둘 모두 상대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줄 뿐,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라는 제안은 <보기>에서 민 영감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손은 주웅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불행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웅 또한 이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해서는 주웅이 이야기했을 뿐, 민 영감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⑤ 주웅이나 민 영감 모두 역설적 발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지는 않았다.

알아두기 설(說)

한문학 양식의 한 갈래로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시비를 따져 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것으로, 국문학상의 갈래로는 수필에 해당한다. '설'은 사물 또는 사건(사실, 개별적 체험)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거기에 글쓴이의 의견(깨우침, 교훈)을 서술하는 것으로, 우의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제시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03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주웅은 세상살이라는 것이 거대한 물결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니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편안한 데서 살게 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안전하지만 나태해지는 땅에서의 삶이 아닌, 위험을 딛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배에서의 삶을 선택한 주웅을 통해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주웅이 배에서 사는 것은 재미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평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③ 주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배에서 살고 있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배에서 산다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⑤ 주웅이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이치를 통달하여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